

루이스 캐롤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우리말 옮김

1장. 토끼 굴속으로

엘리스는 언니 옆에 앉아 할일 없이 강독에 앉아있는 게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두 번 언니가 읽고 있는 책에 눈길을 주기도 했지만 그림이나 대화 하나 없는 책이지 뭐예요.

‘그림도 대화도 없는데,’라고 엘리스는 생각했어요. ‘이런 책을 어따 쓴담?’ 그리하여 늘 그러하듯 엘리스는 자기만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지요. 왜 있잖아요, 답다 보면 잠도 밀려오고 약간 멍청해지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그래 데이지 화환(꽃 화환. 주이 아이들이 목걸이로 만듦)을 만들면 어떨까, 일어나 데이지(꽃)만 주우면 되잖아.’

그때 분홍색 눈을 지닌 흰색 토끼 한 마리가 손살같이 그녀 옆을 지나쳐

갔지 뭐예요.

그게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또한 그 토끼가 “이런! 이런! 늦겠는 걸!”라고 말하는 걸 들은 것도 하나도 놀랍진 않았어요. 하긴 그녀도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좀 기이하긴 했었네요. 하지만 그때 모든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답니다.

토끼는 자신의 조끼 호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보더니 더 서둘러 달려갔어요.

엘리스도 뒤따랐어요. 왜냐면 문득 ‘그래 난 예전에 한 번도 조끼를 입거나 호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보는 토끼를 본 적이 없어.’라는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이 사뭇 일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토끼를 따라 들판을 뛰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산울타리 밑에 크게 나 있던 토끼 굴 속으로 그 토끼가 쪽 들어가버리는 걸 보았어요.

여기에 그림 있음

그림설명 : 흰 토끼가 시간을 체크하고 있네요.

뒤이어 앨리스도 거기로 뒤따라 들어갔답니다.

어떻게 빠져나오지 하는 생각일량은 안 들었거든요.

한동안은 터널 같은 토끼굴이 곧장 이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뚝 하고 떨어졌지요. 그래도 머지않아 아주 깊은 우물 바닥으로 떨어질 거 같은 생각은 앨리스도 들었답니다.

근데 우물이 깊은 걸까요 아님 앨리스가 떨어지는 속도가 느린 걸까요?, 한참을 내려갔다 싶은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어 앨리스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아래를 봐도 죄다 캄캄해 분간이 잘 되네요. 그래서 우물 양쪽을 봤더니 거긴 찬장(그릇 놓는 곳)들과 책장들로 꽉 차 있지 뭐예요. 여기저기엔 못으로 그림들과 지도들이 고정되어 있고 말이죠.

그녀가 지나쳐가던 선반에서 향아리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거기엔 “오렌지 마멀레이드(=잼=오렌지잼질+ 레몬잼질)”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안이 텅 비어 있어 그녀로선 이만 저만 실망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향아리가 떨어지면 누군가가 맞고 죽을 수도 있기에 그녀는 다시 그 향아리를 지나가던 선반 하나에 올려다놓았어요.

‘음!’라며 앨리스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다시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겠는데! 그럼 집에서 얼마나 다들 나를 용감하다 생각할까! 그럼 이번엔 지붕에서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을 거야!’

아주 그럴싸한 생각이었답니다.

아래로, 아래로, 계속 아래로.

이 떨어짐에 끝은 있을까요!

“지금껏 수 킬로미터는 넘게 떨어진 거 같은데?”라며 그녀가 크게 말했어요. “이러다 지구중심까지 떨어지는 게 아닐까. 가만 보자, 그게 6천 킬로미터(원문→4천마일. 참고로 정확한 지구반지름은 6,378킬로미터임. 네이버검색참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줄표. 말을 보충할 때 사용)”

엘리스는 아이들 공부방에서 이미 이런 종류의 수업을 몇 번 받아봤답니다. 정말 뽐내기엔 이만한 것도 없죠. 물론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한번 더 말해보는 것은 좋은 학습태도니까요.

“- 그러니까, 정확히 그 길이는 - 근데 위도와 경도는 어디쯤일까?”

당연히 엘리스는 위도와 경도가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자신의 방금 말이 멋지다곤 생각했더랬죠.

이내 곧 그녀의 생각은 계속되었어요.

‘이러다 지구 중심을 관통하는 건 아닐까! 그러다 거꾸로 걷는 사람들 사이로 불쑥 솟구친다면 웃기겠는걸! 다들 기겁을 하겠지 ...’ (원문에 있는 줄표- 기호를 이제부터 모두 줄임표...로 바꿈)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녀는 그런 생각들을 말하는 게 기뻐어요, 게다가 모두 사리에 맞는 말들로 여겨졌거든요, 뭐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럼 일단 그 나라(거꾸로 걷는 나라)의 이름을 물어봐야지, 있지, 내 생각엔, 그게 아마 뉴질랜드 이거나 오스트레일리아일 거 같아?’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허공에서 떨어지고 있는 게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거 있죠! 누가 이런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래 질문을 많이 하면 날 질문이나 하는 어린애로 여길 수 있어! 안 되겠다, 질문 말고, 어디 그 나라 이름이 쓰여진 데가 있을 거야.’

아래로, 아래로, 또 아래로.

계속 떨어지네요.

뭐 다른 할 일도 없었기에 앨리스는 곧 대화를 다시 시작했어요.

‘다이나(앨리스의 고양이이름)가 오늘밤 날 무척 그리워하겠지, 그럴 거야!’

다이나는 앨리스의 고양이이름이랍니다.

‘오후 차마실 때 다이나에게도 접시에 우유를 담아줬나 몰라, 우리 귀여운 다이나! 나랑 같이 왔음 좋았을 걸! 하긴 허공엔 생쥐가 없지, 그럼 박쥐를 잡아먹으면 안 될까, 그게 생쥐랑 닮았잖아. 근데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몰라?’

앨리스는 다시 졸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결에 혼자 대화를 계속 해나갔답니다.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이따금씩은,

‘박쥐가 고양이를 먹나?’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녀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뭘 소용이겠어요. 졸리기 시작한 마당에 말이죠. 그러다 그녀가 막 꿈에서 다이나(고양이이름)와 손을 잡고 걸으며 무척 들떠 말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있지, 다이나(고양이이름), 진실을 말해줘, 너 박쥐 먹어봤어?”

그 순간 쿵! 쿵! 소리를 내며 앨리스는 마른 잎사귀와 가지(나뭇가지)들이 쌓인 곳에 떨어졌답니다. 기어이 낙하가 끝이 난 거죠.

앨리스는 크게 다치지도 않았기에, 벌떡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를 쳐다보니 온통 검었어요, 근데 그녀 앞으로 기다란 통로가 있지 뭐예요. 앗, 흰 토끼가 보이네요. 서둘러 가고 있었어요.

농칠 수야 없죠, 앨리스도 바람같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곧 토끼가 모퉁이

를 돌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려왔어요.

“오 내 귀와 수염 좀 봐, 이러다 정말 늙겠는걸!”

그와 동시에 엘리스도 모퉁이를 돌았어요, 근데 토끼의 모습이 더는 보이지 않지 뭐예요. 그냥 길고 낮은 복도에 들어와 있지 뭐예요. 천정엔 램프들이 일렬로 매달려 불을 밝히고 있었지요.

복도에 쪽 문들이 달려 있는데 모두 잠겨 있었어요.

엘리스가 걸어가 보며 문을 차례대로 열어보았지만 다 실패하고서 중간쯤 왔을 때 문득 ‘앗 맞다 여길 어떻게 빠져나가지’라는 생각이 들지 뭐예요.

순간 엘리스는 이제 세 다리 탁자에까지 왔어요, 단단한 유리로 만들어진 탁자였답니다. 거기엔 작은 황금 열쇠 하나 외엔 아무 것도 없었어요.

‘이게 저 문들 중 하나와 맞지 않을까?’

하지만 아아! 어쩔까요, 열쇠구멍들이 너무 커서 작은 열쇠와 안 맞아 문들이 하나도 안 열렸어요.

하지만 돌아서올 때쯤 낮은 커튼 뒤로 전엔 못 보았던 작은 문이 하나 나 있는 게 보이지 뭐예요. 높이가 38센티미터 쯤 되어 보이는 문이었어요. 그녀가 작은 황금 열쇠를 열쇠구멍에 넣어보니 기쁘게도 딱 맞아떨어지지 뭐예요!

여기에 그림 있음

앨리스가 문을 열어보니 작은 통로가 나 있었어요. 하지만 토끼 굴보단 훨씬 작았죠.

그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 통로에 머리를 내밀어보니 눈앞으로 사랑스런 정원이 펼쳐지지 뭐예요.

너무도 화사한 꽃들과 시원한 분수들을 보니 너무도 이 칙칙한 복도에서 그 정원으로 빠져나가고 싶어 앨리스는 안달이 났어요. 하지만 그 통로는 불쌍한 앨리스의 머리만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인 걸요. 도무지 어깨를 빠져나가게 할 순 없었죠.

‘오, 내 몸을 망원경처럼 접을 수만 있다면! 아이참, 접히기 시작만 하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리하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앨리스는 한 참을 버둥거린 끝에 지금 상태론 이 통로를 지나가는 건 무리란 걸 깨닫게 되었죠.

작은 문 옆에서 기다릴 거 없이, 그녀는 탁자로 되돌아갔어요, 혹시 뭔가 다른 열쇠가 있지 않을까 아님 사람의 몸을 망원경처럼 접었다 펴다 할 수 있는 마법의 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요.

그때 그녀가 작은 병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세요? 이걸 전엔 여기 없던 거예요.

“어, 없던 건데,”라고 앨리스가 말했어요.

병의 목엔 종이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날 마셔’라고 아름다운 글씨체로 적혀 있었답니다.

여기에 그림 있음

그건 정말이지 두 말할 필요 없는 “날 마셔”란 글자였어요, 살짝 현명했던 엘리스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먼저 맛만 볼까,”라며 그녀가 말했어요. “독인지 아닌지부터 봐야 하니까.”

왜냐하면 잘못 먹고 큰 화를 입은 아이들과 야생동물들에 대한 몇몇 불유쾌한 사건들을 예전에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났기 때문이지요.

그들 모두는 아주 간단한 것을 깜빡했기 때문이에요.

“빨갱게 달아오른 부지깥이(불을 휘젓는 쇠막대기)를 너무 오래 쥐고 있음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예리한 칼날에 손을 갖다대었다간 피가 날 수 있어.”

엘리스는 잊지 않았답니다.

‘그래 독극물 표시가 있는 병에 든 건, 마시면 큰일 나.’

하지만 다행하게도 이 병엔 독극물 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스는 가감하게 맛을 보았어요. 그건 아주 달콤한 맛이었어요. 사실 ‘체리 타트’(과일 파이)와 ‘커스터드’(우유 달걀 설탕을 섞어 구운 과자) 그리고 파인애플과 구운 칠면조와 ‘태피’(설탕과 버터로 만든 과자)와 버터를 발라 구운 토스트(빵)이 한데 섞인 맛이 났다곤 입에서 사라졌지요.

* * * * *

* * * * *

* * * * *

“신기하네!”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내 몸이 망원경처럼 작아지는(접히는) 느낌이야.”

정말 그랬어요. 그녀의 키는 이제 기껏 25센티미터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정원으로 가는 작은 문을 지날 수 있겠네.’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답니다.

하지만 우선 그녀는 몸이 추가적으로 더 쪼그라드는지 살펴려고 몇 분 더 기다려보았어요.

굳이 초조하진 않았지만, ‘한번 시작했음 끝을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양초마냥 밖으로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불이 끄진 양초가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려했지만 원체 뭐 그런 걸 본격적이 있어야 말이죠.

잠시 더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자, 그녀는 정원으로 나가보려 결심을 했어요.

하지만 아 불쌍한 엘리스! 문에 갔더니 글썽 작은 황금 열쇠를 깜빡 놓고 온 게 생각나지 뭐예요.

그녀가 탁자로 돌아와 보니 도저히 지금의 키로는 탁자 위까지 손이 닿지 않았어요. 유리 탁자 위가 훤히 보였지만 도무지 탁자 다리를 타고 오를 수가 없었어요, 유리가 너무 미끄러웠거든요.

아무리 시도해도 소용이 없자 그녀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뚝, 울어도 소용없잖니!”라며 엘리스가 속으로 말했어요. 그러니 다소 감

정이 누그러지네요. “잊어버리라 충고할게!”

그녀는 자신에게 충고를 하는 버릇이 있었답니다. 물론 그 충고를 받아들인 적은 극히 드물지만 말이죠. 때때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신랄하게 비난해 눈물이 쏙 날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크로케’(잔디 위에서 하는 공놀이) 게임을 틀어 하는 것처럼 연기한 적도 있었답니다. 호기심 많은 어린이는 자기가 두 사람인척 연기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지금은 두 사람인척 연기해도,’라며 불쌍한 앨리스가 생각했어요. “소용없어! 한 사람 정신머리 지니기도 벅차니까!

곧 그녀의 눈에 탁자 아래에 놓인 작은 유리상자로 가 닿았어요.

그녀가 열어보니 안에 작은 케이크가 들어있고 거기엔 ‘날 먹어’란 글씨가 아름답게 적혀 있었어요.

“그럼, 먹어야지,”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이게 날 커지게 해 열쇠에 손이 닿게 해줄 거야. 만약 이게 나를 조금만 커지게 해도 어쨌든 나는 문을 기어나갈 수 있을 테고 그럼 정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난 상관 없어!“

한입 베어 먹은 그녀가 초조하게 말했어요.

“어때? 어때?”

그녀가 손을 머리에 얹어보니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가 깜짝 놀라는 사이 벌써 예전 크기로 돌아와 있지 뭐예요.

한입 베어 먹고 이리 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놀랐겠지만 이쯤 되니 앨리스로선 별로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먹던 거 계속 먹기 시작해 곧 케이크를 몽땅 먹어치우고 말았답니다.

2장 눈물 응덩이

여기에 그림 있음

“갈수록 가관이네!”라며 엘리스가 소리쳤어요.

그녀도 정말 너무 놀라 순간 예쁜 말을 써야한다는 걸 깜빡했을 정도였답니다.

“내가 큰 망원경처럼 늘어나고 있잖아! 안녕(작별인사), 발아!”

정말 그녀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니 그건 저만치 멀리에 보였어요. 게다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지 뭐예요.

‘오, 불쌍한 내 발, 이젠 누가 너희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니? 난 못할 거고! 내가 이렇게 머니 너희들이 알아서 신어야 하는데... 아니지 발들에겐 친절해야해.’라고 엘리스는 생각했어요. ‘아님 이제 발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걸어가줄 거잖아! 어디보자, 크리스마스 때마다 너희들에게 새 부츠(장화)를 사줄게.’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그녀는 궁리해보고 있었답니다.

‘택배아저씨(원문→우편집배원)에게 가져다달래야지,’라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그럼 얼마나 재밌을까, 내 발에 주는 선물이니까! 받는 사람 이름이 참 별날 거야!’

(한줄 띄움)

(받는 분 주소)

난로 앞 깔개에 있는

흙받이에 계신

앨리스의 오른발 님께

(앨리스님의 사랑을 담아서)

(한줄 띄움)

참 엉터리 같은 소리를 잘도 하네(ㅋㅋ)!

그때 그녀의 머리가 복도 천정에 쿵하고 닿았어요. 이젠 정말이지 그녀의 키가 2미터 70센티미터까지 커져버렸답니다. 그래서 서둘러 조그마한 황금 열쇠를 쥐곤 정원으로 가는 문으로 갔어요.

불쌍한 앨리스! 그녀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기껏 몸을 옆으로 눕혀 한쪽 눈으로 정원 밖을 들여다보는 게 다였어요. 이래선 도무지 빠져나갈 방법이 없겠는 걸요. 지친 그녀가 주저앉아 펑펑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등치만 커가지곤.”

그건 이런 의미였어요.

“이렇게 울기만 해선 소용없어! 똑 그쳐 애!”

하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질 게 없어 눈물이 주렁주렁 흘러내렸고 급기야 그녀 주위로 큰 물웅덩이가 생겨버렸답니다. 깊이도 자그마치 10센티미터나 되고 온 복도의 절반이 이 눈물들로 차 있었지요.

잠시 후 그녀는 저 멀찍이에서 또닥또닥 이는 발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서둘러 눈물을 닦고 보니 뭔가 오고 있었어요.

이런 흰 토끼가 되돌아왔네요,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손엔 흰색 가죽 장갑

을 쥐고 다른 손엔 큰 부채를 들고 있는 바로 그 토끼였어요.

토끼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면서도 연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오! 공작부인, 공작부인! 오! 늦으면 그녀가 가만두지 않을 텐데!”

엘리스는 지금 너무 당황한 상태라 도와 달라고 말을 붙일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때 토끼가 그녀 가까이까지 다가왔죠. 그래서 엘리스는 낮고 소심한 목소리로 “저 실례가 안 된다면...”라고 말했어요.

그 소리에 토끼가 기겁을 하며 가죽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린 채 화들짝 놀라 죽으라고 뛰어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기에 그림 있음

복도가 무척 더운지라 엘리스는 그 부채와 장갑을 주워들어 한동안 부채질을 하며 말을 했어요.

“이런, 이런! 오늘따라 참 이상도 하지! 어제까지만 해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밤에 싹 다 바뀐 걸까? 가만 보자, 그래 오늘 아침 일어날 때만 해도 같았어? 확실히 그때도 뭔가 살짝 다른 느낌이었지. 내가 같지 않다면, 다음 질문은 이거네. 대체 난 누구지? 아, 엄청난 수수께끼네!”

그렇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그녀는 곧 자기 또래의 아이들을 생각해냈어요, 자신이 그들 중 아무와 바뀐 게 아닐까 심려되어서요.

“확실히 ‘에이다’는 아냐,”라며 그녀가 말했어요. “왜냐면 그녀의 머리카락은 아주 긴 곱슬머리지만 지금의 난 전혀 곱슬머리가 아닌걸. 그렇다고 내가 ‘메이벌’로 바뀐 것도 아냐, 왜냐면 난 뭐든 다 알고 있지만, 그 애는, 오! 그 애는 하나도 모르잖아! 게다가 그 애는 그 애고, 난 난 걸, 그리고... 오 이런, 이 무슨 수수께끼람! 머리가 어찌된 건 아닌지 시험해봐야겠다. 가만 보자, 4 곱하기 5는 12(정답은 20), 4 곱하기 6은 13(정답은 24), 그리고 4 곱하기 7은... 오 이런! 난 20(정답은 28)을 넘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 곱셈은 관두고, 지리를 볼까. 런던은 파리의 수도, 파리는 로마의 수도, 로마는... 아닌데, 모두 틀렸어. 난 확실히! 바보 메이벌로 바꿨나봐! 노래를 불러봐야지, ‘꼬마 악어가 얼마나...’”

그녀는 그렇게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서 배웠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설었죠. 가사들도 예전 같지 않게 다가왔는걸요...

두고 간 샴들과, 일렬로 늘어선 집들과, 그 뒤로 철도역이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녀는 곧 이것이 자신이 2미터 70센티미터였을 때 흘린 눈물 웅덩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여기에 그림 있음

“너무 많이 울었나봐!”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이리저리 헤엄을 치며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그녀가 말했어요.

“별 받아봐, 어쩔, 내 눈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니! 참 기묘한 일이겠는 걸, 어쩔! 하지만 오늘은 죄다 다 이상하기만 해.”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뭔가가 침병하고 빠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보려고 그녀는 그쪽으로 헤엄을 쳐갔답니다.

처음엔 그게 바다코끼리나 하마인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곧 그걸 그리 부르기에 너무 작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는 곧 그게 엘리스 자기 자신처럼 실수로 물에 빠진 생쥐 한 마리란 걸 알았어요.

‘제가 도와줄지 몰라,’라며 엘리스가 생각했어요. ‘근데 생쥐가 말을 하나? 하긴 여기까지 온 게 다 이상했으니 생쥐가 말을 해도 하나도 안 이상할 테지. 여하튼 해코지는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녀가 말을 걸어보았어요.

“애 생쥐야, 너 이 물웅덩이에서 나가는 방법 아니? 난 여기서 이리저리 헤엄치는 데 지쳤거든, 응 생쥐야!”

엘리스는 이것이 생쥐에게 말을 거는 온당한 방법이라 생각했지요. 하긴 뭐 전에 한 번도 생쥐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오빠의 라틴어(고대 로마제국의 언어) 문법책에서 본 게 기억나지 뭐예요.

“생쥐는... 생쥐의... 생쥐에게... 생쥐가... 애 생쥐야!”

생쥐는 다소 호기심이 생겼는지 그녀 쪽으로 힐끗 쳐다보더니 그 작은 눈으로 살짝 윙크를 보내는 듯하더니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 영어를 모르나봐,’라며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그렇담 프랑스 생쥐인가, 왜 있잖아, 정복왕 윌리엄(1066년에 영국을 정복한 프랑스의 노르망디 공작. 바이킹이 창궐하자 프랑스 왕이 바이킹들에게 프랑스 땅을 일부 떼어 주고 살면서 다른 바이킹들 막으라고 한 게 노르망디 공국임) 때 넘어온 생쥐.’

앨리스의 역사 지식에 의하면 그 생쥐가 프랑스 생쥐란 것보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더 확실한 해명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다시 프랑스어로 말을 걸어보았어요.

“네 고양이는 어딴니?”

그건 그녀의 프랑스어 교제에 있는 첫 문장이었거든요.

그 말에 생쥐가 물 밖으로 튀어올랐어요, 정말 기겁을 한 모양이었어요.

“오, 미안해!”라며 앨리스가 서둘러 소리쳤어요. 그녀로서도 정말이지 이 불쌍한 동물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네가 고양이를 싫어한다는 걸 깜빡했어.”

“그래 싫어해!”라며 생쥐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고양이들을 정말로 경멸한다는 듯이 말이죠. “네가 나라도 고양이들을 좋아했겠니?”

여기에 그림 있음

“응, 아닐 거야,”라며 달래는 말투로 엘리스가 말했어요. “그러니 화내지 마렴. 하긴 내 고양이인 ‘다이내’(엘리스의 고양이 이름)를 네게 보여주고 싶긴 해. 네가 그 엘 보기만 함녀 고양이에 관한 기존 관념을 짝 버릴 텐데 말이야. 그 애는 정말 차분하고 귀여운 고양이거든.”

이 말을 하며 기분이 살짝 나아졌는지 엘리스는 물웅덩이에서 게으르게 헤엄을 치며 말했어요.

“불가에 앉아 목을 가르랑거리며 앞발을 훑으며 세수를 하는 모습이 어찌

나 귀여운지... 게다가 안을 때의 보드라운이란... 생쥐도 여간 잘 잡는 게 아니란다... 아, 미안!”라며 앨리스가 다시 소리쳤어요.

이번엔 생쥐가 온 털을 곤두세우며 기겁을 하는지라, 앨리스로서도 큰 무례를 범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 더는 네 기분을 상하게 하는 애긴 하지 말자.”

“우리라고!”라며 생쥐가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어요. “내가 꼭 그 주제로 말을 한 것처럼 말을 하네! 우리 생쥐들은 고양이를 증오한다고, 항상 그래왔어. 그 거만하고 비열하고 야비한 것들을 말이야! 그러니 그 이름일랑은 다시 말하지 마!”

“알았어, 정말 그렇게!”라며 서둘러 대화 주제를 바꾸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근데...너... 개는 좋아해?”

생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앨리스는 열을 내며 말했지요.

“우리 집 근처엔 작은 뽕이도 한 마리 있는데 네게 보여주고 싶을 정도야! 눈이 작고 맑은 테리어개(애완견종류)인데 너도 알다시피 길고 곱슬진 갈색 털들이 일품이란다! 네가 던지는 건 뭐든 물어다줘, 저녁엔 앉아서 밥을 달라고 하지, 뭐든... 어, 근데... 그 개는 어느 농장주의 개인데, 그 아저씨 말로는 엄청 쓸모 있는 개라서 값이 자그마치 5천만 원(원문→1백 파운드)은 거뜬히 나갈 거래! 그리고 그 개가 쥐는 뭐든 잡아 죽인데... 앗 차!”라며 앨리스가 슬픈 말투로 소리쳤어요. “내가 또 네 기분을 상하게 했구나!”

이번엔 정말로 토라진 생쥐는 있는 힘껏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면서 달아나버렸어요.

그(생쥐) 뒤로 앨리스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생쥐야! 다시 돌아와주렴, 다신 고양이나 강아지 이야긴 하지 않을게, 네

가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 말을 들은 생쥐가 크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그녀 곁으로 되돌아왔지요.

그래도 생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마도 울화통이 터진 걸 참느라 그런가 봐요, 라고 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생쥐가 낮고 떨리는 말투로 말했어요.

“일단 물으로 가보자, 일단 올라간 다음에 내 사연을 말해줄게, 그럼 너도 내가 왜 고양이와 개들을 증오하는지 알게 될 거야.”

하긴 이 물웅덩이에서 벗어나야할 시간이긴 했어요, 그새 실수로 빠진 새들과 동물들로 물웅덩이는 그야말로 붐비다 못해 비좁을 지경이었거든요. 그중엔 오리와 도도새(새이름. 그림링크▶ <https://goo.gl/dFQ1Ei> . 몸길이 1미터 정도의 날지 못하는 큰 새. 지금은 멸종됨)들 그리고 진홍잉꼬와 새끼 수리와 몇몇 진기한 동물들이 있었답니다.

앨리스가 앞장을 서자 나머지 모든 동물들도 뒤따라 해안가로 헤엄을 쳐나갔답니다.

(2장 끝)

※ 위의 동화는, 아래링크의 영어동화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3장 코커스 경주와 긴 이야기

강둑에 올라온 동물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새들은 젖은 깃털들을 질질 끌고 있었고, 동물들은 털이 몸에 딱 달라붙어 희안했어요. 모두들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힘들고 불편해했어요.

좌중을 휩쓴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어떻게 말리느냐였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몇 분 후엔 앨리스도 그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마치 그들 모두를 전부터 잘 아는 마냥요.

정말로 그녀는 앵무새와도 열띤 토론을 길게 나누었는데, 결국 앵무새가 부루통해져선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난 너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니 아는 것도 더 많다고.”

하지만 앨리스는 “네가 몇 살인지 알기 전에는 절대 그걸 인정할 수 없

어”라며 우겼고 앵무새는 더 부루통해져선 절대 자기 나이를 밝히길 거부하곤 더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그들 중 가장 위엄 있어 보이던 생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모두들, 앉아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쨌든 몸을 말려야하지 않겠습니까들!”

그러자 그들이 일시에 생쥐를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앉았어요.

얼른 몸을 말리지 않고선 독감에 걸릴 거 같은 느낌이 들어 엘리스도 생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답니다.

“에헴!”하며 생쥐가 사뭇 진지한 말투로 말했어요. “다들 앉으셨죠? 몸을 말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고 있지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하려고만 들면 말이죠! 그건 바로, ‘교황의 지지를 받던 정복왕 윌리엄이, 지도자를 필요로 하던 영국을 순식간에 굴복시키고 많은 재물과 땅을 획득했듯. 머시아(영국 중부에 있던 옛 왕국이름)와 노섬브리아(영국 북부에 있던 옛 왕국이름)의 백작들이던 에드윈(남자이름)과 모르카(남자이름)도...”

“웁(구토하는 소리)!”라며 앵무새가 와들 떨며 말했어요.

“거 참!”라며 기분이 엇잡아진 생쥐가 나름 예의를 갖추며 말했어요.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뇨!”라며 앵무새가 급히 말했어요.

“그러실 거 같았어요,”라며 생쥐가 말했어요. “...그럼 얘기를 계속하자면, ‘머시아(영국 중부에 있던 옛 왕국이름)와 노섬브리아(영국 북부에 있던 옛 왕국이름)의 백작들이던 에드윈(남자이름)과 모르카(남자이름)도 정복왕 윌리엄(영국을 침공해 정복해버린 프랑스의 노르망디 공국의 왕)을 지지하고 나섰고, 심지어 캔터베리(영국 남동쪽. 프랑스 아주 가까이에 있는 도시)의 대

주교(예를 들면 서울을 관할하는 직책 같은 것)였던 스티갠드(남자이름)마저도 거기에 호의적인 것으로 밝혀지는데…”

“밝혀지다뇨, 뭐가요?”라며 오리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기란,”라며 생쥐가 사뭇 심술이 난 듯 대꾸했어요. “밝혀졌다는 거요.”

“그러니까 ‘거기’가 무얼 뜻하는 건지는 잘 알겠는데 뭐가 밝혀졌다는 건가요,”라며 오리가 말했어요. “그게 개구리요 아님 벌레요. 제 질문은 대주교의 무엇이 밝혀졌다는 거지요?”

생쥐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얘기를 계속해나갔어요.

“…그리하여 에드거 왕자와 함께 가 그(정복왕 윌리엄)에게 왕관을 받치는 것에 호의적인 것으로 밝혀지는데. 이에 윌리엄도 나름 처음엔 정중한 척 행동했는데. 뭐 원체 노르만 인(바이킹 민족)들의 오만방자함이 뻗속까지 베어 있다 보니…’ 이제 제 말 뜻 아시겠지요, 여러분들?” 생쥐는 이 대목을 말하며 앨리스를 꼭 집어 쳐다봤답니다.

“여전히 축축해요,”라며 앨리스가 우울한 어조로 말했어요. “전혀 마른 거 같지 않다고요.”

“이런 경우엔,”라며 도도새가 일어서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회의를 종치고(마치고) 즉시 활동적인 운동치료를 강구하는 거지요…”

“우리말(영어)로 말씀하세요!”라며 새끼 독수리가 말했어요. “방금 한 말의 반도 이해 못하겠다고요. 더구나 당신도 못 미답긴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하며 자기도 만족스러웠는지 새끼 독수리는 미소 지은 얼굴을 숙여 감추었다.

그러자 일부 새들이 대놓고 킁킁(웃는 소리)거리지 뭐예요.

“내가 말하고자 했던 건,”라며 도도새가 무척 기분이 상한 듯 말했어요.

“우리들의 몸을 말리는 데에는 ‘코커스 경주’(미국 영국에서 각 정당 대표들이 만나 전혀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자기주장만 하는 정치회의)만한 게 없다는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

“코커스 경주가 뭐죠?”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았지만, 도도새가 마치 그 질문을 누군가 자기에게 해줄 것을 기대한 듯 말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선뜻 묻지 않기에 엘리스가 나서게 된 거예요.

“그렇담,”라며 도도새가 말했어요. “그게 뭔지 설명할 최고의 방법은 이거지.”

여러분들도 겨울철에 한 번 해보세요, 이제부터 도도새가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릴거거든요.

우선 경주로(뛰는 길)를 그어요, 예를 들면 원도 좋겠네요.

이때 중요한 건 정확한 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 그냥 그어세요.

그런 다음 모두 그 경주로에 위치하세요, 여기 저기 어디에 서든 좋아요.

그런 다음 “하나, 둘, 셋, 땅”하는 신호 없이 그냥 내키는 사람부터 뿔박질을 시작하면 되요, 그리고 멈출 때도 내키는 사람부터 멈추면 되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 경주가 언제 끝났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함정이~

하지만 이런 식으로 30분쯤 뛰고 나면 몸이 싹 다 마른답니다.

도도새가 불쑥 외쳤지요.

“경주 끝났어!”

그러자 모두들 숨을 헐떡이며 둥글게 모였어요, 그들이 물었죠.

“근데 누가 우승한 거야?”

이 질문엔 도도새조차도 선뜻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도새가 손가락 하나를 자기 이마에 꼭 누른 채 깊은 사색에 들어갔죠. 이마란 여러분들이 셰익스피어(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생애1564~1616년)의 초상화를 보

실 때 딱하니 보이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도도새가 생각을 거듭하는 동안 나머지 동물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지켜 보고 있었죠.

마침내 도도새가 말했어요.

“모두가 우승자야, 모두 상을 받아야해.”

“그럼 그 상은 누가 주는데?”라는 단체합창이 돌아왔어요.

“그야, 물론, 저 애지,”라며 도도새가 손가락 하나로 엘리스를 꼭 짊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모두가 일시에 엘리스 주위로 모여들며 “상 줘! 상달라고!”라며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엘리스도 아무 생각이 없었긴 마찬가지죠. 그녀가 절망감에 자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보니 눈깔사탕들이 든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다행히 소금물(엘리스의 눈물 웅덩이)에 젖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걸 모두에게 상으로 나눠주었습니다. 다행히도 모두 하나씩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 애도 상을 받아야해.”라며 생쥐가 말했어요.

“당근이지,”라며 도도새가 사뭇 장엄한 말투로 말했어요. “그래 네 호주머니에 또 판 건 없니?”라며 도도새(남자임)가 엘리스에게로 몸을 돌리며 말했어요.

“골무(바느질할 때 손가락 끝에 끼우는 거. [사진링크▶
https://goo.gl/I5bc2C](https://goo.gl/I5bc2C)) 하나뿐인데,”라며 엘리스가 슬픈 듯 말했어요.

“그럼 그거라도 이리 줘봐.”라며 도도새가 말했어요.

도도새가 정중하게 그 골무를 엘리스에게 선사하는 동안 동물들이 다시 한 번 그녀를 둥글게 둘러쌌어요.

도도새가 말했어요.

“이 우아한 골무를 선사하노니 받아주시게.”

이 짧은 연설이 끝나자 그들이 다 같이 와 하고 박수를 쳤어요.

여기에 그림 있음

(검색일자 : 2017-6-3)

그림설명 : 어머, 도도새가 골무(바느질 할 때 손가락 끝에 끼우는 거)를 선사하네요.

엘리스로선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모두들 너무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감히 소리 내 웃질 못했어요.

그리하여 그녀는 입 꼭 다물고서 간단히 몸을 굽혀 인사를 한 다음 그 골무를 받곤 할 수 있는 한 진지한 표정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음 한 일은 모두에게 돌아간 눈깔사탕을 먹는 일이었어요. 이게 소란과 혼잡을 유발했는데, 아 글썬 큰 새들은 “사탕이 너무 작아 뭐 맛인지도 알지 못하겠어.”라며 불평이었고, 작은 새들은 “사탕이 너무 커서 목에 걸렸나봐, 내 등 좀 두드려줘.”라며 아우성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일도 모두 끝나자, 모두들 다시 등글게 자리에 앉아, 생쥐보고 이야길 더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연(생쥐가 고양이와 개를 싫어하게 된 사연)을 얘기 해주신다면서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왜 그 있잖아요... 야옹이와 멍멍이요.”

그녀가 이렇게 살며시 속삭인 건 생쥐가 또 기분이 상해할까봐서였어요

“그 얘긴 슬프고도 긴 얘기여서!”라며 생쥐가 엘리스를 돌아보며 한숨을 지으며 말했어요.

“길다는 건 알겠는데요,”라며 엘리스가 생쥐의 꼬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왜 슬플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생쥐의 얘기가 계속되는 동안 엘리스는 그 이유에 대해 계속 골똘히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급기야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 생쥐의 이야기 시작)

 퓨리어(분노. 불량한 개)가
 집에 찾아온
 생쥐한테
 말했어요.
“너 나랑
 법원 가자.
 아무래도
 내가 널 고소해야겠다…
 자 어서,
 어떤 반대도
 용납지 않을 테야.
 우린 무조건
 재판을 해야 해.
 왜냐면
 오늘 아침
 내가 따로
 할 게 없거든.”
 그래서 생쥐가
 그 불량배 개보고

말했지요.

“아저씨,

배심원(판단하는 사람)도

정의도 없는

그런

재판일량은

우리

삶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럼 내가

배심원도 하고,

재판도 하면 돼지.”

라고

약삭빠른

늙은 퓨리어(불량한 개)가 말했어요.

“이 일로

제가

당신을

죽을

때까지

소송

걸

거란

말예요.”

(끝 - 생쥐의 이야기 끝)

그림설명 : 생쥐가 엘리스와 새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너 안 듣고 있구나!”라며 생쥐가 엄한 말투로 엘리스에게 말했어요. “뭘 생각을 그리 하는 거니?”

“미안해요,”라며 엘리스가 아주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다섯 번 감았다고 말씀하셨죠?”

“아냐!”라며 생쥐가 매섭고 호된 말투로 소리쳤어요.

“끈!”라며 엘리스는 이런 경우 적절히 써먹을 수 있는 말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 끈 좀 풀게 도와주시겠어요!”

“내가 그딴 걸 왜해,”라며 생쥐가 벌떡 일어나더니 가버리고 있었어요. “넌 날 그런 허무맹랑한 말로 모욕했어!”

“진심이 아니었어요!”라며 가련한 엘리스가 사정했어요. “그렇지만 너무 쉽게 기분을 상해하시는 거 아닌가요!”

생쥐는 대답대신 툭툭(으르렁) 거리기만 했어요.

“돌아오셔서 얘기마저 다 해달라고요!”라며 엘리스가 생쥐 뒤를 향해 소리쳤어요.

다른 동물들도 한 목소리로 합창을 했지요.

“그래요, 화 푸세요!”

하지만 생쥐는 더 참지 못하고 고개만 흔들면서 점점 더 빨리 멀어져가고 있었어요.

생쥐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마자, 앵무새가 “그 참 유감이군!”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참에 엄마 게(바닷가에서 옆으로 걸어 다니는 게)는 자기 딸에게 말할

기회가 생겼어요.

“오, 애! 절대 화를 내선 안 된단다!”

“입이나 닫아, 엄마!”라며 어린 게가 버릇없이 대꾸했어요. “누구도 엄마 잔소리엔 두 손 두 발 다들 테니까!”

“우리 ‘다이나’(엘리스의 고양이 이름)가 여기 있었음 좋았으련만!”라며 엘리스가 특정한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지만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생쥐를 금방 데려왔을 건데!”

“다이나가 누구냐고 물어봐도 되니?”라며 앵무새가 말했어요.

엘리스가 열띠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항상 자신의 애완동물에 대해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이나는 우리 집 고양이야. 정말 생쥐 하나는 잘 잡는 단다! 오, 그 애가 새를 잡는 걸 너도 봐야 하는데! 눈에 띄는 족족 한 입에 꿀꺽 해버리거든!”

이 말이 동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일부 새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나이 많은 까치 한 마리는 날개로 자신을 감싸며 말했지요.

“음 집에 가 봐야 할 시간인걸. 밤공기는 차가우니까!”

엄마 카나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이들을 부르며 말하고 있었죠.

“자 가자구나, 애들아! 잠자리에 들 시간이란다!”

그 외 모두들 다양한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떴고, 곧 엘리스 혼자만 남게 되었죠.

“다이나(엘리스의 고양이 이름) 애기를 꺼내는 게 아니었어!”라며 그녀가 울적한 마음에 혼잣말을 했어요. “여기 아래선 아무도 그 애를 좋아하지 않잖아, 바깥세상에서야 최고의 고양이지! 오 우리 다이나! 내가 널 다시 볼 수

나 있을까!”

불쌍한 앨리스가 또다시 감정에 북받쳐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홀로된 느낌과 사기 저하 탓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가련히 후두두 나는 게 들려오지 않겠어요. 고개를 들어 그 쪽으로 보았죠. 생쥐가 마음이 바뀌어 자기 얘기를 끝마치려 돌아오는 걸까 하고서요.

(3장 끝)

※ 위의 동화는, [아래링크](#)의 영어동화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3장. 코커스 경주와 긴 이야기」 ▶
<https://ebooks.adelaide.edu.au/c/carroll/lewis/alice/chapter3.html> (검색일자 : 2017-6-3)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장 토끼가 꼬마 도마뱀 빌을 (집 굴뚝 안으로) 들여보내다

그건 바로 사방을 둘러보며 총총 걸음으로 되돌아오고 있던 흰 토끼였어요. 마치 뭔가 잃어버린 게 있는 모양 두리번 거리고 있네요.

토끼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게 들려왔어요.

“공작부인! 공작부인! 오 내 발톱! 오 내 털과 수염! 그녀라면 날 죽이고도 남아, 족제비들만큼이나 분명하다고! 내가 그걸(장갑과 부채) 어따 떨어뜨렸담, 어디지?”

엘리스는 단번에 토끼가 부채와 흰 장갑을 찾고 있는 거란 걸 눈치챘답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씨를 지닌 엘리스도 그제 자신한테 있나 뒤져보았지만

전혀 없지 뭐예요.

아무래도 눈물웅덩이(엘리스의 눈물로 만들어진 웅덩이)에 빠진 뒤로 모든 게 뒤죽박죽 바뀌었나 봐요. 커다랗던 복도며 유리 탁자며 작은 문(커튼 뒤의 작은 문.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가는 문)마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 뭐예요.

곧 토끼가 엘리스를 발견했어요. 이러저리 찾고 있는 엘리스의 모습을 말이죠. 순간 토끼가 벌떡 화를 내며 엘리스에게 호통쳤어요.

“애, 메리 앤, 여기서 뭐하는 거니? 얼른 가서 내 장갑과 부채를 가져와야 할 게 아니냐! 어서, 가봐!”

화들짝 놀란 엘리스가 단박에 일어나 토끼가 가리킨 쪽으로 뛰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사람 잘못 봤다는 말을 할 틈도 없지 뭐예요.

“나를 자기 집 하녀로 아나봐,”라며 엘리스는 달리면서 혼자 말했어요. “내가 아닌 걸 알면 얼마나 놀랄까! 하지만 우선은 부채와 장갑을 찾아서 갖다 주는 게 좋겠어... 뭐 물론 그걸 발견할 수 있다면 말이야.”

이 말을 하는 금방 그녀는 아담하고 깨끗한 귀여운 집에 다다랐답니다. 그 집 현관문엔 “흰 토끼 네 집”라고 새긴 낯쇠 명패가 걸려 있었어요.

노크하지 않고 그녀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가 보았어요, 왜냐면 정말 메리 앤(흰 토끼 네 집의 하녀이름)을 만나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부채와 장갑만 찾아 다시 나올 생각이었죠.

“토끼 심부름을 다 하다니,”라며 엘리스가 혼잣말을 했어요. “참 신기해 그치! 이러다 다음번엔 다이나(엘리스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 심부름을 하는 건 아닌지 몰라!”

그럼 어찌될 지 그녀는 다음과 같은 상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고양이의 말→) 엘리스 양! 어서 와, 나를 산책시켜야 할 게 아냐! (또 고

양이의 말→) 애, 당장 와! 왜 생쥐 한 마리도 안 보인느 거니.”

엘리스의 말은 계속 되었지요.

“만약 그 짤 식으로 다이나(고양이 이름)가 나를 다룬다면 어른들이 당장 그 애를 집에서 내쫓을지 몰라!”

이쯤 그녀가 창가에 탁자가 놓인 작고 아담한 방으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 탁자 위엔 그녀의 바램대로 부채 하나와 작고 흰 가죽 장갑 두세 켤레가 놓여 있었답니다.

그녀가 그 부채와 장갑 한 켤레를 집어 들고 막 방을 나서려다, 거울 가까이 놓아둔 작은 물병과 딱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이번엔 병에 “날 마셔”와 같은 어떤 이름표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스는 마개를 열어 입술에 가져가보았어요.

“내가 뭔가를 먹거나 마실 때마다,”라며 그녀가 혼잣말을 했어요. “뭔가 재미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 그러니 이것도 마셔봐야지. 키가 다시 커지면 좋으련만, 왜냐면 작은 몸집은 이제 싫증나거든!”

정말 그녀의 기대는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그녀가 병의 반을 마시자마자 고개가 어느새 천정에 가 닿아서 그녀가 목을 구부려야했어요, 하마터면 목뼈가 뿌러질 뻔 했으니까요.

그녀는 서둘러 병을 내려놓고 혼잣말로 말했어요.

“이젠 됐어... 이 정도 키가 딱 좋은데... 더 커지면 문을 못 빠져나가거든... 근데 너무 마신 건 아닌지 몰라!”

여기에 그림 있음

아아! 너무 늦은 건가 요!

그녀는 계속 커지고 또 커지고 이젠 정말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할 정도였어요.

게다가 1분도 안 되서 이젠 방조차도 그녀를 감당하기엔 작아져 그녀는 팔꿈치를 방문에 기대고 다른 팔은 머리 위로 하고서 드러누워야 했습니다.

어머나, 그런데도 그녀는 계속 커지고 또 커져 급기야는 팔 한 쪽이 창밖

으로 나갔고요, 다리 한 짝은 굴뚝 위로 내밀어야 했답니다.

그녀가 혼잣말로 말했어요.

“이제야 잠잠해졌네, 더는 안 커지고 있어. 그나저나 이젠 어찌지?”

다행히도 그 口라대로 마술 병의 효력이 다해 그녀의 몸이 더는 커지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아주 불편했죠. 이대로라면 방을 다시 빠져나가긴 글렀나 봐요, 아 불행해라.

‘집에 있으면 좋으련만,’라며 불쌍한 앨리스가 생각했어요. “커지고 작아질 때마다 생쥐나 토끼의 명령을 받잖아. 그냥 토끼 굴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는데... 아... 그나저나... 이젠 정말 어쩔담!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지! 동화책을 읽을 때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상상을 했었지만 그게 지금 정말 벌어질 줄 누가 알았남! 나에 관한 책이 쓰여야 해, 암! 내가 어른이 되면 꼭 쓸 거야... 근데 아 맞다 난 지금 벌써 어른만큼 자랐지.”

그녀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일단 여기 방은 내가 더 자랄 틈이 없다는 게 확실해.”

‘그럼 난,’라며 앨리스가 생각했어요. ‘이제 더는 나이를 안 먹는 건가? 하긴 그럼 좋긴 하겠네, 어쨌든... 할머니가 되진 않을 태니...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계속 배워야 하잖아! 아, 그건 싫은데!’

“이런, 바보 같은 앨리스!”라며 그녀가 혼자 대답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배울 수 있겠니? 꿈쩍도 할 수 없고, 책을 놓을 공간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그녀가 한 사람과 그와 대화 나누는 또 한 사람을 가정해 대화를 주고 받고 있는 사이, 어찌 밖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 같더니 가만 귀를 기울여보는 눈치였어요.

“메리 앤! 메리 앤!”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내 장갑 냉큼 가져오지 못하니!”

그런 다음 또박또박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게 들렸어요.

아무래도 토끼가 앨리스를 살피려 직접 온 거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몸을 떨었는데 그 바람에 집 전체가 흔들렸죠. 앨리스가 그새 깜빡하고 자신이 토끼보단 천 배는 커졌다는 걸 잊었지 뭐예요. 이젠 더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이내 곧 토끼가 문 앞에 도착해 열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앨리스가 팔꿈치로 문을 단단히 누르고 있어 토끼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죠.

앨리스의 귀에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담 돌아서 창문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안 돼’라고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시 기다려보았더니 토끼가 창바로 밑까지 온 게 들리는 거 같았어요.

순간 그녀가 한 쪽 손을 내밀어 허공을 움켜잡는 시늉을 했어요.

물론 그녀는 아무 것도 잡지 못했지만, 작은 비명소리가 나더니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와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무래도 ‘오이 온실이나 그 비슷한 곳으로 떨어졌나보다’고 앨리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여기에 그림 있음

다음 순간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토끼의 목소리였어요… “패트(남자이름)! 패트! 너 어딴니?”

그런 다음 그녀가 전엔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여깁어요! 사과 따고 있었어요, 나리!”

“사과나 따고 있다고, 응!”라며 토끼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리와! 어서 이리로 와 날 꺼내줘!”

곧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더 들려왔어요.

“자 말해봐, 패트(남자이름), 창 안에 뭐가 있는 거니?”

“확실히, 저건 팔인데요, 나리!”

패트는 팔을 ‘파아아알’이라고 발음했어요.

“팔이라고, 이 얼간아! 저렇게 큰 팔이 어딴어? 응, 저게 지금 온 창문을 다 채우고 있잖아!”

“그런데, 나리, 저건 분명 팔인덱쇼.”

“뭘 똥판지같은 소리야, 됐어 됐으니까 어서 가서 저걸 꺼내!”

이후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이따금씩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았죠.

이런 소리요.

“아, 글썄, 나리,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덱쇼!”

“내가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잖아, 이 겁장아!”

결국 엘리스가 손을 다시 내밀어 허공을 움켜잡는 시늉을 다시 했어요.

이번엔 두 명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화장창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더 들렸어요.

‘확실히 여긴 오이 온실이 많나봐!’라며 앨리스가 생각했어요. ‘저들이 다음엔 어떻게 나올까! 날 창문에서 끌어낼 거면 정말 끌어낼 수 있었음 좋으련만! 나도 여기 더 있기 싫다고!’

그녀가 잠시 기다려보았지만 더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작은 수레바퀴들이 굴러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많은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그 중 몇 마디는 앨리스도 알아들을 수 있을 거 같았답니다. 다음과 같았거든요.

“사다리 어딴어? 또 다른 사다리 말이야?... 진, 하나만 가져왔는덱쇼. 빌이 다른 하나를 가졌거든요... 빌! 사다리 이리 가져와, 이 녀석아!... 여기 이리로 사다리를 대... 아니, 우선 그걸 같이 묶어야한다고... 그래도 반도 안 닿는덱쇼... 오! 충분해. 딴 말 좀 마... 이리와, 빌! 끈 좀 잡아줘... 지붕이 견딜까?... 지붕 슬레이트(기와)가 느슨하니 조심하라고... 오, 내려가게! 머리를 아래로!”

이어 큰 굉음이 들려왔어요.

“지금 또 뭐야?... 빌인덱쇼... 누가 굴뚝으로 내려가게?... 난 안할 테니 네가 해!... 난 안할 거라니까!... 빌 내려가... 어이, 빌! 주인님이 너보고 굴뚝으로 내려가라 그랬다니깐!”

“오! 그럼 빌이 굴뚝으로 내려오는 건가?”라며 앨리스가 혼잣말로 말했어요. “저들은 모두 빌에게 일을 떠맡기려나봐! 하지만 그런다고 내가 봐줄 거 같아. 이 벽난로는 확실히 좁다고, 그러니 내가 살짝만 차도 돼!”

여기에 그림 있음

그림링크



<https://ebooks.adelaide.edu.au/c/carroll/lewis/alice/images/image070.jpg>

(검색일자 : 2017-6-4)

그림설명 : “빌(꼬마 도마뱀)이 날아간다!”

그녀는 발을 까짓것 굴뚝에 넣고 작은 동물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곧이 작은 동물이라고 말한 건 달리 생각나는 게 없었거든요. 곧 그녀 위쪽 굴뚝에서 사각사각 굽고 굽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가 속으로 말했어요.

“빌이다.”

순간 그녀가 한 발 날째게 뻗은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지켜보았답니다.

그녀가 들은 첫 번째 소음은 “빌이 날아간다!”라는 단체합창이었고 뒤이어 토끼가… “채를 부축해줘, 산울타리에서 끌어내라고!”라고 말한 것과 곧이어 침묵이 흐르고 어리둥절해하는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게 들렸어요… “내 머리 좀 잡아줘… 브랜디(술) 좀 줘봐… 목이 막힐 수 있으니 조심하게… 이제 좀 어때, 형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서 말해보게!”

곧이어 힘없이 앙앙 우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게 빌이구나.’라고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글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 괜찮아, 이 정도 마셨음 됐어… 너무 당황스러워 여러분들께 뭐라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거라곤 뭔가 도깨비 상자 같은 게 쑥 기어 나오더니 곧 제가 유성(빛줄기)처럼 날아 올랐다는 거예요!”

“자넨 정말 날았어, 형씨!”라며 다른 이들이 말했어요.

“집을 태워버려야겠다!”라는 토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앨리스가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그랬단 봐, 확 다이나(앨리스의 고양이 이름)를 풀어버릴 테니까!”

그 즉시 밖이 쥐 죽은 조용해졌어요.

앨리스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들이 다음엔 어떻게 나올까! 분별(생각)이 있다면 그냥 지붕을 뜯어내면 될 텐데.’

1~2분 후 사방에서 뭔가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토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선 급한 대로 손수레 한 대분이면 될 거야.”

‘손수레 뭐?’라며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었어요, 곧바로 작은 조약돌들이 소나기 오듯이 창안으로 날아 들어왔거든요.

그 조약돌들 중 몇 개는 앨리스의 얼굴에도 가 맞았어요.

‘못하게 하고 말테다.’라며 그녀가 속으로 생각하곤 크게 소리쳤어요. “당장 그만 두는 게 좋을 걸!”

그 즉시 또 다시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그 조약돌들이 모두 작은 케이크로 변해 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것을 보고 앨리스는 살짝 놀랐어요. 그러다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그래 이 케이크들 중 하나만 먹어보자,’라고 그녀는 생각했어요. ‘내 몸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게 분명해. 더 커지는 건 불가능하니 아마 작아질 거야.’

그래서 케이크 하나를 꿀꺽 삼켜보았답니다. 기쁘게도 키가 줄어들기 시작하지 뭐예요.

그녀는 이제 문을 통과할 만큼 충분히 작아졌어요.

그녀가 집밖으로 뛰어나와보니 작은 동물들과 새들이 밖에 구름같이 몰려 있었어요.

그들 한 가운데엔 가련한 꼬마 도마뱀 빌이 두 ‘기니피그’(25~50센티미터의 쥐. 사진링크 ▶ <https://goo.gl/JYMpK4>)의 부축을 받으며 술병에서 뭔가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모두들 앨리스에게로 구름같이 돌진해왔고 앨리스는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해 울창한 숲에 몸을 숨기고 나서야 간신히 안전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몸을 예전 크기로 되돌리는 게,”라며 앨리스는 숲을 방황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우선은 급선무야. 두 번째는 사랑스런 정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거고. 그게 최선이야.”

그녀가 생각해도 깔끔하고 손쉬우면서도 확실한 좋은 계획이었어요.

근데 딱 하나 문제가, 그 간단한 계획을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느냐였답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눈빛으로 나무들 사이를 힐끗힐끗 보고 있는데, 뭔가 그녀 고개 위에서 날카롭게 짚는 소리가 들려 그녀가는 서둘러 고개를 들어보았답니다.

여기에 그림 있음

매우 큰 강아지 한 마리가 푹푹망망한 눈빛을 하고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지 뭐예요. 앞발 하나는 살며시 내뻗어선 그녀를 건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불쌍한 것!”라며 살살 다래는 말투로 엘리스가 말했어요. 그리고 휘파람도 불어보려고 무진 애썼어요. 왜냐면 혹시 강아지가 배가 고파 꿀꺽 하고 자신을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오들오들 떨려서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줄기 하나는 뽑아 강아지한테 내밀었어요. 그러자 강아지가 펄쩍 펄쩍 뛰며 좋아 쾅쾅 거리면서 줄기로 달려들었어요. 걱정하던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자 엘리스가 큰 엉덩퀴(사진링크 ▶ <https://goo.gl/Kz74eg>) 뒤로 급히 피해 충들을 피했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다른 쪽 방향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그러자 강아지는 줄기를 향해 또 달려와 뒷발을 들고 고개를 숙이며 줄기를 물려고 했지요.

엘리스는 이 게임이 좋았어요. 짐마차의 말과 재미나게 놀던 게 생각났거든요. 그래도 걱정도 되었답니다. 강아지의 발에 밟힐 수가 있었거든요. 엘리스가 엉덩퀴를 던지자 강아지가 쫓아갔다 주워왔어요. 떠들썩하게 짚어대더니 마침내는 저도 지쳤는지 자리에 앉아 혀를 입 아래까지 내걸고선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눈꺼풀이 무거워졌는지 스프르 반쯤 감기는 거예요.

지금 이 달아날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녀가 냉큼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너무 달려 숨이 찰 때까지요, 저 멀리에서 짚어대는 강아지의 소리가 가물가물해질 때까지요.

“그래도 참 귀여운 강아지였어!”라며 엘리스가 걸음을 멈추고 미나리아재비(풀이름. 사진링크 ▶ <https://goo.gl/Y7IXCs>)에 기대 휴식을 취하며 말했

어요.

그녀가 그 잎사귀 하나로 부채질을 하며 말했어요.

“이런… 내 키만 원래대로였어도, 강아지에게 채주를 가르치는 게 재밌으련만! 오 이쁜! 그리고 보니 얼른 다시 커야 한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네! 가만 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뭘 먹거나 마시면 될 것도 같은데, 여기서 질문, 그럼 뭘 먹지?”

그 질문이 너무도 확고했어요, 대체 뭘 먹어야하냐고요?

엘리스는 주변의 꽃들과 잔디의 풀들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먹거나 마셔도 될 성 싶은 건 눈에 띄지 않지 뭐예요.

그나마 다행인건 그녀 가까이에 그녀의 키만큼 커다란 버섯 한 송이가 자라고 있어, 그녀가 거리로 다가간 다음 아래를 살펴보고 양 옆 쪽을 살펴보고 뒤도 살펴보다, 위도 올려다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가 발끝을 들어 버섯 꼬트머리 위쪽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양 팔을 접은 채 기다란 물담뱃대를 조용히 피우며 세상 태평하게 버섯 꼭대기에 앉아 있던 커다란 애벌레의 눈과 딱 맞닥뜨렸지 뭐예요.

(4장 끝)

※ 위의 동화는, 아래링크의 영어동화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 4장. 토끼가 꼬마 도마뱀 빌을 들여보내다」

5장 애벌레의 충고

애벌레와 앨리스는 잠시 동안 서로 말없이 상대방을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마침내 애벌레가 입에서 물담뱃대를 떼더니 나른하게 잠 오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네가 누군데?”라며 애벌레가 말했어요.

여기에 그림 있음

그림설명 : 애벌레와 마주친 엘리스

그 말은 대화를 시작하기에 썩 좋은 말투는 아니었죠.

엘리스가 약간 주눅이 들어 말했어요.

“지금은… 그냥 저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깬 때만 해도 제가 누군지 알았는데, 나중 가서는 시도 때도 없이 몸이 변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라며 애벌레가 엄하게 말했어요. “찬찬히 설명해봐!”

“유감스럽게도, 저도 설명해드릴 수가 없네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제가 제가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내가 뭘 본다고.”라며 애벌레가 말했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해드리지 못해 유감이에요,”라며 엘리스로선 나름 정중하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선은 제가 저를 잘 모르겠거든요, 오늘만 해도 몸집이 수차례 달라져서 이젠 혼란스러워요.”

“아닌데,”라며 애벌레가 말했어요.

“음, 아마 잘 모르시나본데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당신도 번데기로 변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나비로 변하게 되면, 그때 지금 제 말이 낯설지 않게 여겨지실 거예요, 조금은요, 그죠?”

“전혀.”라며 애벌레가 말했어요.

“그래도, 감정이 사뭇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네가!”라며 애벌레가 경멸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대체 네가 누군데?”

이리하여 그들의 대화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애벌레의 짧은 말이 엘리스를 좀 짜증나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스는 몸을 바로 세우며 사뭇 진지

하게 말했죠.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부터 말씀하시는 게 도리 아닌가요.”

“내가 왜?”라며 애벌레가 말했어요.

이렇게 또 한 번 비비 꼬인 질문이 나오자, 앨리스로서도 타당한 이유를 생각해낼 수 없었죠.

보아하니 애벌레의 마음상태가 유쾌한 기분은 아닌 거 같아 앨리스는 돌아서 갔어요.

“돌아와!”라며 애벌레가 그의 뒤를 향해 말했어요. “내가 중요한 얘길 해 줄 테니까!”

정말인거 같아, 앨리스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 돌아왔습니다.

“성질을 누그러뜨려.”라며 애벌레가 말했어요.

“아니 그게 다예요?”라며 앨리스가 울컥하는 화를 삼키며 말했어요.

“아니.”라며 애벌레가 말했어요.

딱히 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앨리스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럼 뭔가 귀담아 들어줄 만한 걸 애벌레가 말해주지 않을까 해서요.

한참 후 애벌레가 말 없이 한 모금 쪽 물담뱃대를 빨더니 마침내는 팔짱을 풀고 물담뱃대도 입에서 떼곤 다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넌 내가 변했다 생각하는 거지, 그치?”

“유감스럽게도요,”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평상시 것들도 잘 생각나지 않거든요... 10분 동안 같은 크기였던 적이 없어요!”

“뭘 기억할 수 없지?”라며 애벌레가 말했어요.

“음, 제가 ‘꿀벌이 얼마나 부지런 한가’를 말하면 똑같이 나오지가 않아요!” 앨리스가 사뭇 우울해져선 말했어요.

“그럼 어디 ‘연로하신 윌리엄(남자이름) 아버지’(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시)를 한 번 읊어보거라.”라며 애벌레가 말했어요.

앨리스는 우선 양 손을 포갠 다음 시작했답니다...

“연로하신 윌리엄 아버지,”라며 젊은이가 말했네.

“이젠 머리도 새하얘지셨으면서,

어찌 그리 물구나무를 잘도 서세요...

정말 나이 드신 거 맞으세요?”

여기에 그림 있음

“나도 젊을 적엔,”라며 윌리엄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말했어요.
“머리를 다칠까 염려되더라.
하지만 지금은 머리가 텅 비어있으니 그럴 염려가 전혀 없잖니.
그래서 이렇게 물구나무를 서고 또 서는 거란다.”

“전에도 말씀드렸듯,”라며 젊은이가 말하네. “연로하시고
엄청 똥똥해지셨는데도.
어찌 그리 문을 공중제비를 돌며 날쌔게도 출입하세요…
원 세상에, 그 젊음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에 그림 있음

“어릴 적부터,”라며 호호백발의 머리를 뒤로 젖히며 노인이 말하네.
“한 상자에 2만원(원문→1실링)하는… 이 연고를 매일 바르다보니
이렇듯 팔다리가 유연하게 유지되지 뭐니
어째 너도 한두 개쯤 사두겠니?”

“연로하셔서,”라며 젊은이가 말했어요. “쇠기름(소고기의 기름)보다 질긴
걸 드시기엔

턱도 많이 약해지셨 으면서도,

그렇듯 거위를 통 채 다 드시니...

이게 어연 일이신가요?”

여기에 그림 있음

“젊을 적부터,”라며 아빠가 말하네. “네 엄마 잔소리 때문에
하도 말다툼을 하다보니,
그새 턱 근육이 단단해져서
이렇듯 노년이 되어서도 든든하게 지탱해주더구나.”
“나이 드시어,”라며 젊은이가 말하네. “눈도 침침하시어
예전만 못하실 텐데.
코끝에 뺨장어를 세우고 이렇듯 잘도 지탱하시다니...
도대체 비결이 무엇인가요?”

여기에 그림 있음

“세 가지 질문에나 답해주었음 나도 할만큼 했다.”
라며 아빠가 말하네. “그러니 지껄이지 좀 말거라!
내 얘길 다 듣고도 생각나는 게 없니?
씩 꺼지어라 이놈아, 아님 네 엉덩이를 걷어차 주겠다!”

“맞다곤 못하겠군.”라며 애벌레가 말했어요.

“씩 안 맞는 건 아니죠,”라며 엘리스가 소심하게 말했어요. “단어 몇 개만 바뀐 거 빼고는요.”

“시작부분과 끝부분이 틀렸어.”라며 애벌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곧 침묵이 잠시 그들을 감쌌죠.

애벌레가 먼저 얘기했어요.

“네가 바라는 몸집은?”라며 애벌레가 물었어요.

“오, 특정할 순 없어요.”라며 서둘러 엘리스가 대꾸했어요. “단지 너무 종종 변하니까, 아시다시피.”

“몰라.”라며 애벌레가 말했어요.

엘리스는 아무말도 안 했어요. 정말이지 그녀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반박을 해본 적이 없었던지라 서서히 화가 내려던 참이었어요.

“지금은 어떤데?”라며 애벌레가 말했어요.

“글쎄요, 좀 더 커졌으면 해요, 반대만 안하신다면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7센티미터 키는 너무 작잖아요.”

“아주 좋은 킨데 뭐 그래!”라며 애벌레가 발끈하더니 자기 몸을 세웠어요. 정말 그의 키는 정확하게 7센티미터였답니다.

“하지만 원래 이 키가 아니었다고요!”라며 엘리스가 애원조로 사정했어요.

그녀가 속으로 생각했지요. ‘뭐 이리 반대를 잘하는 애벌레가 다 있담!’

“곧 익숙해질게다.”라며 애벌레가 말했어요. 그러곤 애벌레는 다시 물담뱃대를 입에 가져가더니 담○를 다시 피워댔어요.

이번엔 엘리스도 그 애벌레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보았습니다.

1~2분도 채 안 되서 애벌레가 다시 입에서 물담뱃대를 때고 한두 번 크

게 하품을 하는 거 같더니 몸을 흔들며 버섯에서 내려오더니 구불구불 잔디위를 기며 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 쪽은 널 키울 거고, 다른 쪽은 널 줄일 게다.”

‘어느 쪽이라니? 다른 쪽은 또 뭐고?’라며 앨리스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버섯 말이다.”라며 애벌레가 말했어요. 마치 앨리스가 큰 소리로 물어보기나 한 듯이 말이죠.

다음 순간 애벌레가 홀연히 사라져버렸어요.

앨리스는 잠시 그 버섯을 생각 많이 하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버섯의 어디에 이 쪽 저 쪽 구분이 있다는 건가요. 그녀가 그 질문에 답하려 살살이 둘러봐도 그건 정말이지 완벽히 둥근 버섯이었어요.

하지만 마침내 그녀는 두 팔을 쪽 뻗어 버섯을 까짓것 감싼 다음 양 손에 조금씩 버섯 끝부분 떼어냈답니다.

“어느 쪽이 그거지?”라며 그녀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 손에 든 걸 조금 뜯어먹어보니 즉시 효과가 나타났어요.

다음 순간 그녀는 자신의 턱 밑이 사정없이 가격당한 느낌을 받았고 이내 곧 자기 발과 부딪히고 말았답니다!

급격히도 빠른 이 변화에 덜컥 겁이 난 그녀는 서둘러서 입을 정말 쪼그라들어 없어지고 말 거란 생각에, 즉시 다른 손에 든 걸 먹어려고 시도했어요.

자신의 턱이 발과 너무도 가까이 있어 입을 벌릴 틈도 없었지만, 마침내 왼손에 든 버섯을 베어 먹을 수 있었어요.

* * * * *

* * * * *

* * * * *

“아 이제야 고개가 자유로워졌어!”라며 앨리스가 기뻐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내 곧 자신의 양쪽 어깨가 안 보이는 바람에 기겁을 하고 말았
죠.

그녀가 아래를 쳐다보니 보이는 거라곤 엄청나게 긴 목뿐이었어요. 그건
마치 저 아래에 수북이 놓인 바다 같은 푸른 나뭇잎들 위로 우뚝 솟은 즐기
같지 뭐예요.

“저 푸른 것들은 다 뭐지?”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대체 내 두 어깨는
어디 있는 거야? 오, 불쌍한 내 손, 내가 너희들을 볼 수는 있는 거니?”

그녀는 말을 하며 두 손을 움직여 보았지만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저 수북이 먼 저 밑의 푸른 나뭇잎들 사이에서 뭔가 흔들리는
게 아마 저게 손인 거 같았지요.

아무래도 양 손을 고개까지 올리는 건 무리일 거 같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손 쪽으로 숙이려고 해봤더니 다행하게도 목은 정말 어느 방향으로나 쉽게
구부러지지 뭐예요, 마치 뱀처럼요.

그녀가 목을 나름 우아하게 베베 꼬으며 아래로 숙이는데 성공해 딱 나뭇
잎들의 바다에 닿으려고 보니 모두 나무 꼭대기들이지 뭐예요. 그녀가 그 아
래에서 돌아다니던 그 나무들이요.

그때 날카로운 섯 소리에 그녀가 황급히 뒤로 몸을 뺐어요. 보니 커다란
비둘기 한 마리가 사납게 날갯짓들을 하며 앨리스의 얼굴을 때리고 있었어

요.

“이 뱀아!”라며 그 비둘기가 비명을 질렀어요.

“난 뱀이 아냐!”라며 앨리스가 발끈해하며 말했어요. “나 좀 내버려달라고!”

“뱀, 다시 말하지만 넌 뱀이야!”라며 비둘기가 말했어요. 하지만 말투가 다소 차분해지며 약간 흐느끼는 것 같았어요. “사방으로 도망 다닌 건데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난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야.”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나무뿌리에도 살아보고, 강둑에도 살아보고, 산울타리에도 살아봤지만,”라며 비둘기는 들은 체도 않고 계속 말했어요. “죄다 뱀들이었어! 죄다 뱀이었다고!”

그 바람에 점점 더 헛갈려진 앨리스가 더는 뭘 소리를 해도 안 먹힐 거 같아 비둘기의 뉘두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알들을 낳는 데까진 문제없었다고,”라며 비둘기가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뱀들 때문에 밤낮으로 망을 봐야했지! 그 바람에 난 3주 동안이나 눈도 한 번 붙인 적이 없어!”

“그거 참 유감이구나.”라며 그제야 비둘기 말의 의미를 알게 된 앨리스가 말했어요.

“그래서 숲에서 가장 높은 나무꼭대기로 이사한 건데,”라며 비둘기가 다시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말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젠 자유로워졌다 여겼는데, 하늘에서 뭔가 꿈틀 데는 게 오는 거야! 오, 이 뱀, 바로 너 말야!”

“제발 난 뱀이 아니라고, 거듭 말하고 있잖니!”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난 그저... 그저...”

“그럼 네가 뭐란 말이니?”라며 비둘기가 말했어요. “무슨 꿩꿩이를 생각하

고 있구나!”

“난… 그저 어린 여자애야,”라며 엘리스가 다소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하긴 오늘만 해도 하도 몸이 바뀌다보니 스스로도 헷갈릴만 하죠.

“그릴싸하군!”라며 비둘기는 정말 경멸스럽다는 듯 말했어요. “난 일전에 수많은 여자애들을 본 적이 있지만, 그 애들 누구도 지금의 너 같은 목은 없었어! 절대, 없었다고! 넌 뱀이야. 부정해도 소용없어. 내 확신하건데, 넌 절대 알을 먹어본 적이 없다 말하려들 게야!”

“알은 나도 맛을 봤어,”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뱀이 아니라도 어린 여자애은 알을 많이 먹는다고, 너도 알잖니.”

“안 믿어,”라며 비둘기가 말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다면 너희도 뱀이야, 그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야.”

이것은 엘리스에겐 너무도 뜻밖의 소리였기에 엘리스는 잠시 1~2분 동안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그걸 본 비둘기가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지금 알을 찾고 있다는 거니? 네가 어린 여자애인지 뱀인지 하는 문제는 내게 중요하거든.”

“내게도 그 문제는 중요해,”라며 엘리스는 서둘러 말했어요. “하지만 난 지금 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야, 우연이라고. 혹여 내가 뱀이라도 네 알들을 필요 없어. 난 날것은 안 좋아해.”

“그럼, 됐어, 가봐!”라며 실쭉한 말투로 비둘기가 말하더니 자기 둥지로 가 앉아버렸어요.

엘리스는 나무들 사이로 까짓것 목을 구부리며 내려갔어요. 이따금씩 나뭇가지들 사이에 목이 휘감겨 멈췄다 다시 목을 풀고 내려갔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두 손엔 버섯이 조금씩 쥐어있다는 걸 떠올렸죠.

그녀가 아주 조심스레 손을 움직이기 시작해 한 번은 이 손에 있는 걸 조금 베어 먹고 또 한 번은 저 쪽 손에 있는 걸 베어 먹고 하며 키를 커지게 했다가 다시 줄였다가 하며 결국 평소 자신의 키로 돌아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원래대로 돌아간 거라 처음엔 그게 무척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내 곧 그 키에도 익숙해져 평소처럼 재잘재잘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계획의 반은 다 했어! 처음엔 하도 바뀌서 헛갈리더니!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이랬다 저랬다 하며 말이야! 이제 아름다운 그 정원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말을 하는 사이 그녀는 어느새 트인 장소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약 1.2미터(120센티미터) 높이의 자그마한 집이 한 채 있는 그런 곳이었지요.

‘저기에 누가 살까,’라며 엘리스는 생각했어요. “이런 크기의 집은 생전 처음 보는데. 나 때문에 놀라게 해선 안 돼!”

그러면서 그녀는 오른손에 든 걸 조금 베워먹었어요. 그렇게 자기 키를 23센티미터 정도로까지 줄인 다음에서야 그녀는 그 집에 다가가볼 용기가 났더랍니다.

(5장 끝)

※ 위의 동화는, 아래링크의 영어동화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6장. 돼지와 후춧가루

1~2분 그녀는 그 집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이제 어쩌나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때 제복 차림을 한 하인이 숲에서 튀어나오더니 자신의 두 주먹으로 사납게 문을 두드렸어요.

엘리스가 그를 하인이라 생각한 것은 그가 입고 있던 제복 때문이에요, 솔직히 얼굴만 봐선 물고리라 부르는 게 더 타당해보였지만요.

곧 제복을 입은 또 다른 하인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근데 그는 큰 두 눈을 한 둥근 얼굴의 개구리였어요.

그들 둘 다 하인들이었죠.

엘리스는 보니, 곱슬머리인 그들의 머리 위에 온통 분가루(화장품 가루)를

하고 있지 뭐예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싶은 생각에 호기심이 난 그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숲에서 살짝 나와보았답니다.

물고기 하인이 곧 자기 팔 밑에 끼고 있던 커다란 편지 한 통을 내밀었어요. 그건 정말이지 그의 몸집만한 편지였어요.

물고기 하인은 그걸 상대방에게 건네며 엄숙한 말투로 말했죠.

“공작부인 앞으로, 여왕폐하로부터 크로케(잔디 위에서 하는 공놀이) 놀이 초대장 발송.”

개구리 하인도 마찬가지로 엄숙한 말투로 반복했어요. 단지 단어 순서만 살짝 바뀌서요.

“여왕폐하로부터, 공작부인 앞으로 크로케 놀이 초대장 접수.”

여기에 그림 있음

급기야 그들이 서로 마주보며 인사를 했을 땐 서로의 곱슬머리가 한데 엉키기까지 한 걸요.

그걸 보고서 엘리스가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들이 들었을까봐 염려돼 다시 황급히 숲으로 기어들어가고 말았답니다.

다시 밖을 내다보니, 물고기 하인은 가고 없고, 개구리 하인만 문 옆 바닥에 앉아 멀뚱멀뚱 하늘만 쳐다복 있었어요.

엘리스가 수줍게 그 문으로 가 노크를 했어요.

“노크해도 소용없을 거다,”라며 하인이 말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하나는 내가 너와 같이 문 밖에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안이 워낙 시끄러워서 아무도 네 노크 소릴 듣지 못할 거기 때문이지.”

확실히 집안이 굉장히 시끄럽긴 했어요... 우는 소리와 재채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이따금씩은 쟁그랑 거리며 접시와 주전자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까지 들렸으니까요.

“그럼 제가,”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 우리 사이에 문이 있다면야,”라며 하인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얘기를 계속해나갔어요. “노크가 소용이 있을 거다만. 예를 들면, 내가 안에서 노크를 한다고 치면, 내가 너를 밖으로 나오게 문을 열어줄 수야 있었을 테지.”

그는 대화하는 내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태도가 엘리스로선 무척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지요.

“눈이 머리 꼭대기에 붙어 있다 보니 ,”라며 그녀가 혼잣말로 말했어요. “그런가 봐. 여하튼 대답이나 들어보자... 그래 어떻게 하면 제가 안에 들어

갈 수 있죠?”라며 그녀가 큰 소리로 되풀이해 말했어요.

“난 내일까지,”라며 하인이 대꾸했어요. “여기 앉아 있을 게다...”

그 순간 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큰 접시가 날아오더니 하인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지나갔어요. 곧 그 접시는 그의 뒤에 있던 나무들 중 하나에 가 부딪히며 쟁그랑 소리를 내고 말았죠.

“...아님 그 다음날까지.”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마냥 하인이 한가롭게 얘기를 계속했어요.

“제가 어떻게 들어가냐고요?”라며 앨리스가 더 큰 소리로 다시 물었지요.

“들어가겠다고?”라며 하인이 말했어요. “그게 첫 질문이지, 그치.”

의심할 바도 없이 정말 그랬기에 말대꾸할 수도 없었지요.

“정말 끔찍해,”라며 그녀가 혼자 중얼거리며 말했어요. “여기 동물들은 항상 이판 식이야. 짜증이 날 정도라고!”

그 틈이 기회로 여겨졌는지 하인이 자신이 방금 했던 말을 되풀이해 말했어요.

“난 여기 앉아 있을 게다, 늘상은 아니더라도 며칠 그렇게 말이다.”

“그럼 저는요?”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네 좋은 대로 하렴.”라고 하인은 말하더니 휘파람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과 대화해선 아무 소용없겠어,”라며 앨리스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완전 바보 아냐!”

그러곤 그녀는 문을 열고 직접 들어가보았답니다.

여기에 그림 있음

문은 곧장 큰 부엌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거긴 이 쪽 저 쪽 온 사방에 연기가 가득했어요.

공작부인은 부엌 가운데 세 다리 의자에 앉아 아기를 달래고 있었어요, 요 리사는 난로에 몸을 숙이고선 스프가 가득 든 거 같은 커다란 솥을 휘젓고

있었어요.

“스프에 후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나봐!”라며 앨리스가 혼잣말을 했어요. 연신 재채기가 나왔거든요.

확실히 후춧가루가 부엌 공기 중에도 가득한 게 틀림없었어요. 공작부인조차도 자주 재채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심지어 아기 조차 재채기를 했는데, 아기는 한시도 가만 있질 못하고 발버둥을 치며 칭얼거리고 있었답니다.

딱 한 명 이 부엌에서 재채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요리사와, 그리고 귀에서 귀까지 썩긋 썩개며 난로 위에 앉아 있는 커다란 고양이 뿐이었어요.

“아니 왜,”라며 약간 기가 죽어선 앨리스가 말했어요. 왜냐면 초면에 그렇게 묻는 건 좋은 예의범절이 아닌 거 같았기 때문이죠. “왜 당신의 고양이는 저토록 실실 썩개고 있죠?”

“체셔(영국 중서부의 주 이름) 고양이니까,”라며 공작부인이 말했어요. “그렇지, 이 돼지야!”

그 마지막 단어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잠시 멍하니 있는데, 알고 보니 그건 공작부인이 앨리스가 아니라 아기보고 한 말이었어요. 그제야 앨리스가 용기를 내 말을 걸어보았지요...

“체셔 지방의 고양이가 항상 썩개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고양이가 웃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모든 고양이들이 그럴 수 있지,”라며 공작부인이 말했어요. “내 말은 그들 대부분이란 뜻이다.”

“전엔 한 번도 못 본 걸요.”라며 나를 정중하게 앨리스가 말했어요. 공작부인과 대화를 나누게 된 게 무척 기뻐거든요.

“사실,”라며 공작부인이 말했어요. “넌 모르는 게 많지.”

그 말투가 전혀 호의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앨리스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

음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새 대화 주제를 골똘히 생각하는 사이, 요리사가 불에서 스프 냄비를 들어내더니, 손에 닿는 건 뭐든 공작부인과 아기에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우선은 부지깽이가 날아왔고, 뒤지어 냄비들과 접시들과 쟁반들이 소나기 오듯 날아왔어요.

그것들이 공작부인에게 날아와 부딪혔음에도 공작부인은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어요. 아기도 처음부터 원체 보채던 터라 쟁반이 날아와 아파서 우는 건지 아닌지 분간하기도 힘들었죠.

“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며 앨리스가 잔뜩 겁이 나 펄쩍 뛰며 말했어요. “비싼 쟁반들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어찌나 큰 냄비들이 아슬아슬 스쳐 지나가는지 아찔했죠.

“여하튼 사람들이 지 일만 잘 신경 썼어도,”라며 공작부인이 으르렁거리는 말투로 말했어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돌아갔을 게다.”

“그렇지 않았을 걸요,”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게다가 앨리스는 자신의 얕은 지식을 뽐낼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선 이렇게 말했지요. “밤과 낮이 변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축(axis. 발음→/액시스/ . 다음Daum영어사전 → [æksis])을 중심으로 지구도 24시간마다 돌잖아요...”

“도끼(axes. 발음→/액시이즈/ . 다음Daum영어사전 → [æksi : z]) 애기 할거면,”라며 공작부인이 말했어요. “목이라도 따주련!”

참말로 그럴 건지 앨리스가 요리사를 걱정스러운 듯 쳐다보았지만, 요리사는 스프를 휘젓느라 정신이 없어 듣지 못한 거 같았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계속 말했어요.

“24시간이 아니면 그럼 12시간인가요? 그러니까 그제...”

“귀찮게 마라,”라며 공작부인이 말했어요. “숫자는 짜증나니까!”

공작부인이 다시 자신의 아기를 달래며 어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공작부인은 나름 자장가를 들려주며 재우려했는데 매 가사마다 아기를 번쩍번쩍 들었다 내려놓았죠.

“아가에게 막말을
재채기하면 때리고,
보채면 그리 하게,
그래야 다신 안 그러지.”

합창.

(요리사와 아기도 같이 합창…)

“와우! 와우! 와우!”

두 번째 절을 노래하는 동안 공작부인은 아기를 난폭하게 위아래로 던졌기에, 불쌍한 아기는 더 목 놓아 울었어요. 그 바람에 엘리스로션 노래 가사를 하나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호되게
재채기하면 때리고,
참으로 기쁘네
기쁠 땐 후춧가루 팍팍!”

합창.

“와우! 와우! 와우!”

“엣다! 네가 돌보거라!”라며 공작부인이 이 말을 하며 아기를 앨리스에게 내던졌어요. “난 여왕폐하와 크로켓 게임을 할 준비를 하러 나가 봐야 되니까.”

그러더니 공작부인은 서둘러 방을 나가버렸어요.

공작부인이 나간 뒤를 향해 요리사가 프라이팬을 던졌는데 가까스로 빗나갔지요.

앨리스는 아기를 좀 힘들게 붙잡아야 했어요, 마치 아기가 팔 다리를 사방으로 내뻗는 기묘하게 생긴 동물인양 말이죠.

‘불가사리(별처럼 생긴 바다생물)마냥.’라고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잡고 있는 동안 어린 것이 증기 기관차처럼 코를 불며 거칠게 숨을 쉬는 바람에 앨리스는 처음 얼마동안은 아기를 잡고 있다 거의 놓칠 뻔했다 다시 잡았다 했어요. 다행히 좀 지나자 아기를 잘 잡고 있을 수 있었죠.

나름 잡고 있는 요령이 생겼어요. 매듭처럼 감싼 다음 오른쪽 귀부분과 왼쪽 발 부분을 거머쥐니 더는 풀리지 않는 거 있죠.

그녀가 아기를 안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아기를 데려가야 해,’라며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이 집에 두고 가면 그들이 하루 이틀 만에 죽일 수도 있어?”

근데 이 말에 아기가 대답을 하는 거 같은데 어째 꼴꼴 거리는 소리로 들리지 뭐예요. 그때쯤엔 아기의 재채기도 멎은 상태였거든요.

“꼴꼴거리지 마렴,”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그건 네가 할 적당한 표현이

아니란다.”

아기가 다시 꿀꿀거렸어요. 그래서 걱정스레 아기 얼굴을 들여다봤더니 어찌 아기 코는 들창코(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는 코)였고 코라기 보단 돼지의 주둥이에 훨씬 더 가까운 코였어요. 또한 두 눈도 아기의 눈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어요. 엘리스가 전혀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얼굴 생김새가 아니었어요.

‘너무 울어서 그럴 수도 있어.’라고 엘리스가 생각하고선 다시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눈물이 남아 있나 보려고요.

하지만 웬걸, 눈물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어요.

“그럼 정말 돼지로 변하려는 거니, 애,”라며 엘리스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그렇담 더는 너와 같이 갈 수 없어. 이제 가려무나!”

불쌍한 것이 다시 흐느껴 울었어요, 아니 꿀꿀거렸어요, 그렇다고 말을 할 나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둘 다 침묵 모드에 들어갔죠.

그때 엘리스에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갈 때 애를 어찌지?’

그때 그것이 다시 더 거칠게 꿀꿀거리기에 엘리스가 깜짝 놀라 그 얼굴을 들여다보니 이번엔 정말 영락없는 돼지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래선 더는 데리고 갈 수 없었죠.

여기에 그림 있음

그래서 앨리스가 그 불쌍한 것을 내려놓았더니 총총 걸음으로 숲속으로 조용히 가 버리기에 일단 안심이 되었답니다.

“자라면,”라며 앨리스가 혼잣말을 했어요. “엄청 못생긴 아이로 자라겠지. 하지만 돼지치고는 잘생기긴 해.”

그녀는 자신이 아는 돼지를 닮은 다른 아이들의 이름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막 이런 말을 했지요.

“돼지로 변해도 짝 애가 딱 하나 있긴 하지...”

그때 그녀의 눈이 몇 미터 떨어진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던 체셔 고양이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살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고양이는 앨리스를 보며 싱긋 웃기만 했어요.

‘착해 보이긴 한데,’라고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주 긴 발톱과 큰 이빨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

“체셔 야옹아,”라며 그녀가 약간 겁을 먹은 채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어쩌나 나름 고민하며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 고양이는 좀 더 활짝 웃기만 했지요.

‘이리 온, 지금까지진 괜찮은데,’라며 앨리스가 생각하며 말을 계속했어요. “내가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을지 말해주면 좋으련만?”

여기에 그림 있음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달렸겠지.”라며 고양이가 말했어요.

“어디든 가도 돼…”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 문제될 게 없잖아.”라며 고양이가 말했어요.

“…그래도 어디든 가야 하니까,”라며 엘리스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럼 네가 충분히 많이 걸기만 하면,”라며 고양이가 말했어요. “되는 거
아냐.”

엘리스로선 말문이 막히고 말았죠. 그래서 다른 질문을 생각해보려 애썼어
요.

“이 주변은 누가 살아?”

“저쪽엔,”라며 고양이가 오른 발을 흔들며 말했어요. “모자장수가 살고.
이쪽엔,”라며 이번엔 왼발을 흔들며 말했어요. “3월 토끼가 살지. 어디든 네
좋을 대로 가려무나. 둘 다 미쳤으니까.”

“하지만 난 미친 사람한테 가고 싶지가 않아.”라며 엘리스가 한마디 했어
요.

“오, 그건 어쩔 수 없지,”라며 고양이가 말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 미쳤으니까. 나도 미쳤고, 너도 미쳤지.”

“내가 미친지 네가 어떻게 안다고?”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넌 틀림없이 미쳤어,”라며 고양이가 말했어요. “그렇지 않다면야 여기 왔
을 리가 없잖아.”

엘리스로선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래도 그녀는 계속 말을 걸어 보았답니다.

“그럼 네가 미친 건 어떻게 아는데?”

“우선,”라며 고양이가 말했어요. “강아지는 안 미쳤잖아. 그건 너도 인정하는 거 아냐?”

“응 그런 거 같아.”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그렇담,”라며 고양이가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보자고. 강아지는 화나면 으르렁 거리고 기쁠 땐 꼬리를 흔들지. 하지만 난 기쁠 때 으르렁거리고 화날 때 꼬리를 흔들거든. 그러니 내가 미쳤단 거지.”

“으르렁이 아니라 가르랑거린다고 하는 거야.”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네 좋은 대로 불러,”라며 고양이가 말했어요. “그럼 너도 오늘 여왕폐하와 크로켓 놀이를 하는 거니?”

“오늘 많이 들은 거 같지만,”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하지만 난 아직 초대받지 못한 걸.”

“거기가면 날 볼 거야.”라며 고양이가 말하더니 홀연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엘리스로선 이것이 별로 놀랍지도 않았답니다. 하도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말이죠.

그녀가 어디로 갈지 살치는 동안 고양이가 순간 또 모습을 드러냈어요.

“근데, 아기는 어떻게 됐어?”라며 고양이가 말했어요. “묻는다는 걸 깜빡했어.”

“돼지로 변해버렸어,”라며 마치 고양이가 그런 식으로 다시 나타난 게 어색하지 않다는 마냥 엘리스가 차분히 말했어요.

“그럴 거라 생각했지.”라며 고양이가 말하더니 다시 사라지고 말았어요.

앨리스가 그 고양이가 다시 나타나리란 기대에 잠시 기다려보았지만 더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1~2분 후엔 3월의 토끼가 산다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모자장수는 전에 봤으니까.”라며 그녀는 혼자 말했어요. “3월 토끼가 더 재밌을 거 같아. 지금이 5월이니 아마 완전히 미친 건 아닐 거야... 적어도 3월만큼 미쳤을 리는 없어.”

이 말을 하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나뭇가지 위에 고양이가 다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 돼지(pig. 발음→/피그/)라고 그랬니 데이지(←꽃. 원문→fig무화과. 발음→/씩그/)라고 그랬니?”라며 고양이가 말했어요.

“돼지라고 말했어요,”라며 앨리스가 대답했어요. “근데 그렇게 불쑥 불쑥 나타났다 사라지시지 좀 앓음 안 돼요. 현기증난단 말예요.”

“좋아,”라며 고양이가 말하더니 이번엔 아주 천천히 사라졌어요. 우선 꼬리부터 사라지더니 끝으로 웃음이 길게 남으며 사라졌지요. 웃음은 고양이가 사라진 다음에도 한참을 그렇게 그 자리에 남아 있다 사라졌답니다.

여기에 그림 있음

‘정말! 저렇게 싱긋 웃는 고양이를 별로 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라며 앨리스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엔 고양이도 없는데 웃음만 남아 있다니! 생전 이런 별난 광경은 또 처음이네!”

멀리가지 않아 3월 토끼가 산다는 그 집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단번에 알아맞힌 이유는, 그 집 굴뚝들이 죄다 토끼의 귀를 하고 있는데다 지붕에 털들로 잔뜩 덮여있었기 때문이지요.

근데 무척이나 큰 집이라, 그녀는 우선 왼손에 들고 있던 머섯을 조금 베

어 먹고서 키를 60센티미터까지 높인 다음에서야 그 집에 다가가볼 용기가
났답니다.

다소 주눅이 든 그녀가 집에 다가서며 혼잣말을 했어요.

“정말 미친 토끼며 어쩐담! 그냥 모자장수한테나 가볼 걸!”

(6장 끝)

※ 위의 동화는, 아래링크의 영어동화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7장. 이상한 다과회

그 집 앞에 있는 나무 아래에 테이블이 하나 차려져 있고, 거기서 ‘3월 토끼’와 ‘모자장수’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겨울잠쥐는 그들 사이에 앉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다른 두 사람은 이 겨울잠쥐를 쿠션으로 사용하며 자신들의 팔꿈치를 올려다놓고 그 겨울잠쥐의 고개너머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죠.

‘겨울잠쥐가 아주 불편해 보이는데,’라고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하긴 잠만 자는 거라면 굳이 불편할 건 없겠지만.’

테이블이 무척 컸음에도 그들 세 명은 테이블의 구석에 한데 모여 앉아 있었죠.

앨리스가 다가오는 것을 본 그들이 소리질렀어요.

“자리 없어! 자리 없다고!”

“여기 넘쳐나는 게 자린데 뭘 그러세요!”라며 앨리스는 화를 내며 테이블 한쪽 끝에 있던 큰 안락의자에 가 앉았어요.

“포도주 좀 마시련.”라며 3월 토끼가 권하며 말했어요.

앨리스가 테이블을 다 둘러보았지만 거긴 차말고는 어떤 다른 것도 없었어요.

“포도주가 없는데요.”라며 앨리스가 한마디 했죠.

“없지.”라며 3월 토끼가 말했어요.

“없는 걸 마시라고 권하는 건 무척 예의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요.”라며 앨리스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럼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자리에 와 앉는 건 예의에 맞는 행동이니.”라며 3월 토끼가 말했어요.

“당신들 테이블인지 몰랐다고요,”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세 사람만 앉아 있기에 지나치게 커잡아요.”

“머리카락들 좀 잘라야겠다,”라며 모자장수가 말했어요. 이걸 그가 앨리스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 던진 첫 마디였어요.

“인신공격을 그리도 막 하시다니,”라며 앨리스가 다소 엄한 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무례하세요.”

이 발언에 모자장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하지만 곧 그가 말했죠. “까마귀가 책상(글 쓰는 책상)과 닮은 점은?”

‘오, 이제사 좀 재밌어지겠는걸!’라며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수수께끼 놀이를 시작하시려나봐요… 제가 다 맞힐 걸요.”라며 앨리스는 큰 소리로 덧붙였죠.

“답을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뜻이지?”라며 3월 토끼가 말했어요.

“정확히 그래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그럼 네가 생각하는 그 뜻부터 말해봐.”라며 3월 토끼가 말했어요.

“그건,”라며 엘리스가 서둘러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 말 뜻은… 그게 그 뜻이잖아요, 아시다시피요.”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모자장수가 말했어요. “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나는 먹는 걸 본다.’와 ‘내가 본 걸 먹는다.’가 같은 거라고 말이다!”

“아예 그냥.”라며 3월 토끼가 추가 설명에 들어갔어요. “‘얼은 게 좋아’랑 ‘좋은 걸 얻었어.’가 서로 같다고 우기지 그러니!”

“그래 맞아,”라며 겨울잠쥐도 잠이 든 채로 뭐라 지껄이는 거 같았어요. “‘자면서 숨쉴다’랑 ‘숨쉬며 잔다’가 같니!”

“넌(겨울잠쥐) 그러잖아.”라며 모자장수가 말하자 일시에 대화가 딱 끊어지면 일동(사람들)은 잠시 말없이 앉아만 있었어요.

그 사이 엘리스는 까마귀와 책상에 대한 많지 않은 기억을 떠올려보는데 전념하고 있었죠.

여기에 그림 있음

침묵을 깬 건 모자장수였어요.

“오늘이 며칠이지?”라며 모자장수가 엘리스를 돌아다보며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살펴보더니 잘 안 되는지 때때로 흔들기도 하고 귀에다 대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엘리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4일이요.”

“이틀이나 늦잖아!”라며 모자장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버터 넣은 게 잘못된 거 아냐!”라며 모자장수가 화난 눈초리로 3월 토끼를 추궁했어요.

“최고급 버터였는데.”라며 3월 토끼가 순순히 인정하며 대답했어요.

“그래, 하지만 빵부스러기도 같이 들어갔을 수 있잖아,”라며 모자장수가 툭툭거렸어요. “네가 빵칼(날이 톱니모양인 빵칼. 빵가게의 1회용 칼 상상바람)로 버터를 집어넣어서 그래.”

3월 토끼는 시계를 건네받아 침울하게 바라보더니 자신의 찻잔 속에 넣어서 다시 살펴보았지만 결과는 썩 나아지지 않은 모양이었죠. “최고급 버터였는데, 당신도 아시잖아요.”

엘리스는 호기심어린 눈으로 3월 토끼의 어깨너머로 시계를 보다가 한 마디 했어요.

“참 별난 시계네! 날짜는 있는데 어째 시간은 없담!”

“그럼?”라며 모자장수가 불평스레 말했어요. “네 시계는 년도도 알려주는 거니?”

“물론 그건 아니죠,”라며 엘리스가 아주 선뜻 대꾸했어요. “오랫동안 같은 년도인데 굳이 시계 기능에 담을 필요는 없죠.”

“내 시계가 딱 그래.”(여기선 굳이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임)라며 모자장수가 말했어요.

엘리스로선 점점 어리둥절해졌지요.

모자장수의 발언이 뭔가 말이 안 되는 듯 하면서도 뭔가 말은 되고 있었거든요.

“당신 말뜻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라며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공손하게 엘리스가 말했어요.

“겨울잠쥐가 또 자는군.”라며 모자장수가 말하더니 느닷없이 좀 뜨거운 차를 겨울잠쥐의 코에 들이부었어요.

겨울잠쥐가 못참고 고개를 흔들더니 눈도 뜨지 않은채로 말했지요. “그래, 그래, 이제 막 말하려던 참이었어.”

“수수께끼 아직 못 맞췄니?”라며 모자장수가 앨리스를 향해 또 돌아다보며 말했어요.

“네, 포기하겠어요,”라며 앨리스가 대꾸했지요. “정답이 뭐죠?”

“정답이 있을 턱이 없지.”라며 모자장수가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라며 3월 토끼가 말했어요.

앨리스가 이젠 그딴 태도에 지친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잘 쓸 수 있을 시간을 그런,”라며 그녀가 말했어요. “정답도 있지도 않은 수수께끼로 낭비하다니.”

“나만큼이나 시간을 잘 아는 눈치군,”라며 모자장수가 말했어요. “그가 너보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리 말하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물론 알 턱이 없겠지!”라며 모자장수가 경멸스럽다는 듯 자기 고개를 쳐들며 말했어요. “내 감히 말하건데, 넌 시간이랑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을 걸!”

“그야 그렇죠,”라며 앨리스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하지만 음악시간에 박자(원문→beat time박자)를 맞추는 건 저도 배워서 안다고요.”

“오호라!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군.”라며 모자장수가 말했어요. “시간은 맞추는 걸 딱 질색할거든. 자, 이제 네가 시간과 친구만 맺으면 그는 네 좋을 대로 시계를 요리해줄 수 있지. 예를 들어, 가령 네 수업이 아침 9시라 치자, 그럼 넌 시간에게 살짝 귀뜸만 하면 돼, 그럼 시계가 재깅재깅 순식간에

돌아 금방 1시 30분이 되어 점심 먹을 시간이 될 거란다!”

“그러기만 하면 장땡인데(그래봤으면 좋겠군).”라며 3월 토끼가 속삭이는 말투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야 핑장할 수 있겠지만,”라며 엘리스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그렇게 금방 또 배가 고플리가 없잖아요, 네.”

“처음부터 그럴 필은 없지,”라며 모자장수가 말했어요. “1시 30분을 네 좋을 대로 정지시키면 되잖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세요?”라며 엘리스가 물었어요.

모자장수가 슬픈 듯 고개를 흔들어보였어요. “왜 안 돼!”라며 그가 대답했죠. “바로 그 주제로… 우리가 지난 3월에 말싸움을 벌인 건데, 그건 그(3월 토끼)가 미치기 전이었지, 아마…”라며 그가 찻숟가락으로 3월 토끼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때쯤 여왕폐하의 궁정에서 큰 콘서트가 열렸는데 내가 노래해야했었거든.”

(두 줄 띄움)

“반짝, 반짝, 작은 박쥐!

네가 뭘 하나 궁금하네!”

“너도 이 노래 아니!”

“들어본 거 같아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이렇게 이어지지, 너도 알겠지만,”라며 모자장수가 이어서 불렀어요. “이

런 식으로 말이야...”

“세상 위 네 날고 싶은 대로,
하늘 속 찻쟁반처럼.
반짝, 반짝...”

(두 줄 띄움)

이때 겨울잠쥐가 몸을 흔들더니 잠결에도 이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반짝, 반짝, 반짝, 반짝...”

그 바람에 모자장수와 3월 토끼가 겨울잠쥐의 노래를 멈추게 하려고 확
꼬집어주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내가 막 첫 부분 가사도 채 다 마치지 못했을 때,”라며 모자장수
가 말했어요. “여왕폐하가 벌떡 일어서며 이렇게 호통을 치시더군. ‘저 놈을
지금 당장 죽여라! 목을 따란 말이다!’”

“어머 잔인해라!”라며 엘리스가 외쳤어요.

“그때 이후로,”라며 모자장수가 슬픈 말투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시간
은 내 요구에 응해주지 않고 있어! 시계는 늘 6시 정각인 지금을 가리키고
있는 거란다.”

여기에 그림 있음

앨리스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 이렇게 수많은 찬그릇들을 내놓은 이유인가요?”라고 물었어요.

“그래, 맞다.”라며 모자장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항상 차 마시는 시

간이지. 그러니 그릇을 씻은 세도 없지.”

“그럼 그릇들을 계속 사용하시나요, 가령?”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정확히 그렇다,”라며 모자장수가 말했어요. “차를 다 마실 때까지 말이지.”

“그럼 다 마시고 나면 어떻게 되는데요?”라며 앨리스가 감히 물었어요.

“대화 주제가 바뀐다거나,”라며 3월 토끼가 끼어들며 그리고 하품을 하면서 말했어요. “싫증이 나거나 그럼 어린 숙녀에게 이야기 하날 해달라 청하지.”

“전 아는 얘기거리가 하나도 없어요.”라며 그 제안에 살짝 당황하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그렇담 겨울잠쥐보고 얘기하라고 해야겠군!”라며 그들 둘다 소리쳤어요. “깨어나, 겨울잠쥐야!”

그들이 양쪽에서 겨울잠쥐를 꼬집었어요.

겨울잠쥐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나 안 잤어.”라며 가냘프게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너희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다고.”

“어서 얘기해줘!”라며 3월 토끼가 말했어요.

“그래요, 얘기해주세요!”라며 앨리스도 부탁드렸어요.

“빨리해,”라며 모자장수가 말했어요. “안 그랬다간 얘기도 시작하기 전에 네가 또 자버릴 테니까.”

“옛날 옛적에 세 자매(여자형제)가 살았어요.”라며 겨울잠쥐가 무척 서둘러 얘기를 시작했지요. “그녀들의 이름은 각각 ‘엘시’, ‘레이시’, ‘틸리’였어요.(세 자매들의 이름은 몰라도 됨. 다시 안 나옴) 그들은 다름 아닌 우물 바닥에서 살았답니다...”

“왜 거기 살죠?”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그녀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해

서라면 관심이 무척 많았거든요, 항상요.

“그녀들은 당밀(액체 설탕)을 먹고 살았으니까요.”라며 겨울잠쥐가 1~2분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곧 말했어요.

“그릴 수 없잖아요, 당밀만 먹었다간,”라며 엘리스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배가 아플 텐데.”

“네 그와 같이,”라며 겨울잠쥐가 말했어요. “그들은 배가 아팠어요.”

엘리스는 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았어요. 그런 기괴한 삶은 어떤 식일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헛갈리는 바람에 그녀가 또 물었어요. “근데 그녀들이 굳이 왜 우물 바닥에 살았는데요?”

“차 좀 더 마실래.”라며 3월의 토끼가 진정으로 엘리스에게 권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요.”라며 엘리스가 반항적인 말투로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더 먹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덜 먹을 순 없잖니.”라며 모자장수가 말했어요. “아무 것도 안 먹는 거보단 더 먹는 게 쉽다는 말이다.”

“당신 의견은 안 물었다고요.”라며 엘리스 말했어요.

“지금 개인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라며 모자장수가 의기양양하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엘리스는 어찌 답해야할지를 몰랐죠. 그래서 문안해진 엘리스가 차와 버터 바른 빵을 조금 먹은 다음 겨울잠쥐에게 몸을 돌리며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녀들이 왜 우물 바닥에 살았죠?”

겨울잠쥐가 다시 1~2분 정도 이 문제를 곰곰 생각해보더니 이내 말했어요.

“당밀(액체 설탕)이 나는 우물이었거든.”

“그런 말도 안 되는!”라며 엘리스가 이번엔 정말 아주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자장수와 3월 토기는 “조용! 조용!”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계속된 반박에 부루통해진 겨울잠쥐조차도 한 마디 했어요.

“자꾸 그렇게 나올 거면, 네가 이 애길 마무리 지으려무나.”

“알았어요, 계속해주세요!”라며 엘리스가 다소 겸손하게 말했어요. “다신 끼어들지 않을 게요. 그럴 법도 하네요.”

“그럴 법도 하다고, 원!”라며 겨울잠쥐가 분개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세 자매가 살았는데… 그녀들은 끄는 법을 배우고 있었더랬죠, 아시다시피…”

“끝다니요, 뭘요?”라며 엘리스가 금세 자신의 약속을 까먹고 말했어요.

“당밀(액체 설탕)을.”라며 겨울잠쥐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깨끗한 잔으로 마시고 싶은데,”라며 모자장수가 끼어들었어요. “모두 자리를 하나씩 이동.”

그 말을 하며 그가 옆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겨울잠쥐도 그를 따라 옮겼고, 3월 토끼도 겨울잠쥐의 자리로 가 앉았어요, 그러니 엘리스로선 다소 내키지 않았지만 3월 토끼의 자리로 가 앉았어요.

이리하여 이 자리이동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모자장수가 유일했어요.

엘리스는 자리를 옮기기 전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는데, 3월 토끼가 움직이다 우유 주전자로 자기 접시에 엮지르고 갔기 때문이지요.

엘리스는 겨울잠쥐 기분을 또 상하게 하고 싶진 않아 조심스레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는 안 가지만. 그녀들이 당밀을 어디서 끌어당겼단 말인가요?”

“너도 우물에서 물을 끌어당기곤 하잖니.”라며 모자장수가 말했어요. “그

러니 내 생각엔 당밀우물에서 당밀을 끌어당겨도 하나도 안 이상할 거 같은데... 응, 바보야?”

“그녀들이 우물 안에 있었다면서요.”라며 앨리스는 모자장수의 마지막 발언은 못 들은 척하며 겨울잠쥐보고 말했어요.

“물론 그녀들은,”라며 겨울잠쥐가 말했어요. “...우물 안에 살았더랬지.”

이 대답에 가련한 앨리스는 더 헛갈려져 겨울잠쥐의 말 한마디에도 꼬치꼬치 캐묻게 되었어요.

“그녀들이 끌어당기는 걸 배우고 있었다고,”라며 겨울잠쥐는 계속 말을 했어요. 하품을 하며 눈을 비비며 말이죠. 왜냐면 아주 즐리웠거든요. “그녀들은 그렇게 모든 걸 끌어당겼지... ‘ㄹ’으로 시작하는 모든 걸 말이야...”

“왜 하필 ‘ㄹ’인데요?”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안될 거도 없잖나?”라며 3월 토끼가 말했어요.

앨리스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러다 결국 겨울잠쥐가 눈을 감고서 쿵쿵 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자장수가 꼬집는 바람에 겨울잠쥐가 살짝 비명을 지르더니 이내 곧 얘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우선 ‘ㄹ’으로 시작되는, ‘마’우스트랩(쥐덫)들과, ‘문’(달)과 ‘메’모리(기억)와 ‘땡’음...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주 말하듯이 ‘땡음 그 비스무리 한 것들’까지... 그러고 보니 넌 ‘땡’음을 끌어당긴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겠구나?”

“지금 제게 하시고 계시잖아요,”라며 앨리스가 엄청 더 헛갈려하며 말했어요. “아니면...”

“그럼 입 다물어야지.”라며 모자장수가 말했어요.

이 무례함은 앨리스가 참을 정도를 훨씬 넘어섰어요. 그녀가 속이 확 뒤집

혀저선 벌떡 일어나 가버렸어요.

이내 곧 겨울잠쥐는 잠에 푹아떨어졌고요, 그들 중 누구도 엘리스가 떠나는 걸 눈길조차 한 번 주지 않았죠.

심지어 그들이 자기를 불러줄 거란 반쯤의 기대로 엘리스 쪽에서 먼저 한 두 번 뒤를 돌아다보았을 정도니까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뒤돌아보았을 때 보니, 그들은 겨울잠쥐를 찾구 전자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하튼 내가 다신 저길 가나 봐라!”라며 엘리스는 숲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하며 말했어요. “내가 지금껏 겪어본 가장 엉망진창인 다과회였다고!”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 때마침 문이 달린 나무가 들어왔어요.

‘어 신기한데!’라며 그녀가 생각했어요. ‘하긴 오늘 벌어진 일들은 죄다 신기한 것들 투성이지. 그럼 곧장 들어가볼까.’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보았답니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다시 한 번 그 기다란 복도에 들어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가까이엔 작은 유리 탁자도 그대로 놓여 있었죠.

“자, 이번엔 좀 더 잘 해보자고.”라며 그녀가 혼잣말을 하며 황금열쇠를 손에 쥐어들곤 정원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어보았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버섯을 살짝 베어 먹어 자신의 키를 30센티미터까지 줄인 다음 작은 통로로 걸어 들어가 보았답니다.

이내 곧… 그녀는 드디어 화사한 화단(꽃밭)들과 시원한 분수들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그 정원 속으로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7장 끝)

8장. 여왕의 크로케 경기장

정원 입구 옆엔 큰 장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하얀 장미들이 나는 나무였죠. 근데 정원사 셋이서 바빠 움직이며 그걸 모두 붉은 장미로 페인트 칠하고 있지 뭐예요.

‘참 별나다’란 생각이 들어 앨리스가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 보았더니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게 들리지 뭐예요.

“잘 좀 칠해, 5번! 온 사방에 페인트를 흘뿌리면 어떡해!”

“어쩔 수 없었다고,”라며 5번이 부루퉁한 말투로 말했어요. “7번이 내 팔꿈치 쳤단 말이야.”

이에 언급된 7번이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 “얼씨구, 5번! 왜 넌 항상 남탓이니!”

“너나 잘해!”라며 5번이 발끈했어요. “넌 어제 여왕폐하로부터 목을 따졌

다는 소릴 들었잖아!”

“뭐땡시(무엇 때문에)?”라며 2번이 처음으로 발언을 했어요.

“네 일이나 신경 쓰라니까, 2번!”라며 7번이 말했어요.

“아냐, 저 녀석 때문이었어!”라며 5번이 말했어요. “내가 그에게 말했거든... 요리사에게 양파를 갖다 주라고 했더니 틀립 뿌리를 갖다 주지 뭐니.”

7번이 자신의 붓을 집어던지며 말막을 해댔어요.

“이 왕싸가지들아...”

그때 7번의 눈이 딱하고 엘리스와 마주쳤어요, 때마침 엘리스가 말뚱말뚱 그들을 바라보며 바로 옆에 와 있었거든요.

7번이 갑자기 말이 없자 다른 사람들도 뒤돌아보다 엘리스를 발견하곤 모두들 엘리스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여기에 그림 있음

그림설명 : 장미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2번과, 5번과, 그리고 7번.

“왜 저 장미들에 페인트칠을 하시고 계신지,”라며 엘리스가 다소 수줍어하며 말했어요. “말씀해주시겠어요?”

5번과 7번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더니 그냥 2번만 바라볼 뿐이었죠.

2번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요, 보시다시피, 아가씨, 여기엔 원래 붉은 장미를 심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실수로 흰 장미를 심었거든요, 만약 여왕폐하가 이 사실을 아시면 저희의 목이 당장에라도 달아날 겁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여왕폐하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 흰장미들을 죄다 붉은 장미로 색칠을 하고 있...”

그 순간 정원 저쪽을 걱정스레 보고 있던 5번이 고함을 질렀어요.

“여왕폐하다! 여왕폐하다!”

세 정원사들이 즉시 몸을 던지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곧 수많은 발자국 소리들이 들려오기에 엘리스는 여왕폐하를 보려고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우선 열 명의 병사들이 골프채(원문→곤봉)를 들고서 입장했어요. 병사들은 아까 세 정원사들과 모양이 똑 같았어요. 모두 직사각형에 납작했죠. 구석마다 두 손과 두 발이 붙어 있었답니다.

다음으로 열 명의 신하들이 입장했어요. 그들은 다이아몬드(◆)로 온통 장식한 채 병사들처럼 두 줄을 지어 입장했어요.

그 다음으로 왕족의 아이들이 입장했어요. 그들도 모두 10명이었어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둘 씩 손에 손을 잡고 흥겹게 뛰며 입장을 했답니다. 그

들도 두 줄로 입장했는데 온통 하트모양(♥)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뒤이어 손님들이 입장했는데, 그들은 대개 왕들과 왕비들이었어요. 그들 사이에 흰 토끼가 있는 걸 엘리스가 발견했답니다. 흰 토끼는 연신 미소를 띄어가며 매우 긴장된 태도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그만 엘리스를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그런 다음 ‘잭’(카드놀이의 잭. 이름이 ‘잭 하트’. 카드게임에 변화는 주는 카드)이 붉은 벨벳(짧고 고운 털이 박힌 직물) 쿠션 위에 왕관을 옮기며 입장했어요.

이 장대한 행렬의 마지막은 ‘**하트(♥) 왕과 여왕**’의 입장이셨답니다.

엘리스는 자신도 이들 세 정원사들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하는 건 아닌지 살짝 기우뚱했어요. 하지만 그런 행렬 법칙일랑은 들은 적이 없다는 걸 떠올렸죠.

‘게다가, 이렇게,’라며 그녀가 생각했어요. ‘모두 바닥에 납작 엎드리면 어떻게 행렬을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녀는 자기 자리에 서선 기다렸지요.

행렬이 그녀 앞을 지나가는 동안, 사람들이 모두 한 번씩 그녀 앞에 서선 쳐다보고 갔어요.

여왕폐하 또한 엄한 얼굴로 물었죠.

“앤 누구지?”

여왕폐하는 잭에게 말했는데, 잭은 단지 굽신 거리며 웃어 보일 뿐이었어요.

“멍청한 놈!”라며 성마른 여왕폐하가 고개를 다시 엘리스한테 돌리며 말을 계속했어요.

“그래 네 이름이 뭐냐, 아가?”

“제 이름은 엘리스예요, 여왕폐하 마마.”라며 엘리스가 아주 정중하게 말했어요. 또한 그녀는 살짝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그래 모두들 카드잖아, 그러니 굳이 내가 그들에게 겁먹을 필요는 없어!”

“이들은 누구지?”라며 여왕폐하가 장미나무 주변에 엎드려있는 세 정원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들이 하나같이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는 데다 등의 패턴 또한 나머지 카드들과 똑같아 엘리스로선 누가 정원사이고 누가 병사들이며 신하들이고 왕과 여왕폐하의 자녀들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제가 굳이 알아야하나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엘리스 자신도 이 용기 있는 발언에 살짝 놀랐을 정도랍니다. “저와 상관없는 걸요.”

여왕폐하가 얼이 박혀 얼굴이 시뻘게 졌어요. 하지만 잠시 후 그녀의 눈에서 불이 번쩍하는 거 같더니 이내 사납게 고함을 질렀지요.

“저 애의 목을 쳐라! 썩...”

“말도 안 돼요!”라며 엘리스가 아주 크고 결연한 말투로 말했어요.

그 바람에 여왕폐하도 입을 꼭 다물고 말았죠.

왕이 그녀의 팔에 손을 얹더니 살짝쿵 이렇게 말했어요.

“내버려두구려, 여보, 아직 어리잖소!”

그제야 화가 풀린 여왕폐하는 대신 껌에게 이리 말했어요.

“저들을 뒤집어놓아라!”

껌이 조심해가며 한 발로 그리 했어요.

“일어서!”라며 여왕폐하가 날카롭게 고함을 지르자, 세 정원사들이 냉큼 일어나 왕과, 여왕폐하와, 공주와 왕자들과,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이들에게 절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못하게 해라!”라며 여왕폐하가 고함질렀어요. “저들 때문에 내 눈이 다 어지럽다.”

그런 다음 장미나무에게 몸을 돌리더니 여왕폐하가 계속 말했어요.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다지?”

“여왕폐하 만세,”라며 2번이 아주 겸손한 태도로 한 쪽 무릎을 꿇고 앉더니 말했어요. “저희들은 다만...”

그러는 사이 여왕폐하는 장미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다 “이제 알겠다!”라며 말했어요. “저들을 목을 베라!”

그런 다음 행렬은 계속 되었고, 세 병사들만이 남아 이 불행한 정원사들에게 사형을 구형하려고 하고 있었지요.

정원사들이 엘리스한테 뛰어가더니 살려 달라 청했어요.

“목을 치는 건 너무해요!”라며 엘리스가 그들을 옆에 있던 큰 화분(꽃을 심는 그릇) 속에 집어넣었어요.

세 병사들은 1~2분 정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정원사들을 찾다 이내 행렬로 뛰어가 합류했어요.

“그래 놈들의 목을 베었느냐?”라며 여왕폐하가 소리쳤어요.

“황소하옵게도, 저 자들의 목들은 사라졌나이다!”라며 병사들이 한 목소리로 고함쳤어요.

“잘했다!”라며 여왕폐하가 소리쳤어요. (여왕폐하가 엘리스한테 묻는 말임 →) “그래 크로케(잔디 위에서 하는 공놀이) 놀이는 할 줄 아느냐?”

병사들은 침묵을 지킨 채 엘리스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여왕폐하의 질문이 누가봐도 엘리스를 지칭하는 게 분명했거든요.

“네!”라며 엘리스가 외쳤지요.

“그럼, 따라오거라!”라며 여왕폐하가 소리쳤어요.

그리하여 엘리스도 이 행렬에 합류하게 되어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뭇 진지해했답니다.

“그... 참 좋은 날씨입니다!”라며 그녀 옆에서 누가 소심하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그녀 바로 옆에서 흰 토끼가 엘리스를 걱정스런 눈빛으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공작부인은 어디 계시는 데요?”

“췌! 췌!”라며 토끼가 한껏 서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자기 어깨 너머를 불안한 듯 넘겨다보더니 발끝을 들어 올려 엘리스의 귓가에 대고 소근거렸어요.

“사형을 선고 받으셨어요.”

“뭇 때문에?”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말인즉슨 그녀가 ‘불쌍하다’ 뭐 이런 거지요?”라며 토끼가

물었어요.

“아뇨, 아뇨,”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대체 왜요?’라고 물은 거예요.”

“그녀가 여왕폐하의 꺾방망이를 한대 갈겼거든요…”라고 토끼가 말하기에, 엘리스로선 웃음보가 터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 췌!”라며 토끼가 경악해선 속삭였어요. “여왕폐하께서 듣겠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공작부인이 좀 늦었는데, 아 글썬 여왕폐하께서 이렇게 말씀 하신 거…”

“각자 위치로!”라며 천둥같은 여왕폐하의 고함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뛰어가려다 서로 부딪혀 구르고 생난리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1~2분 안에 각자들 자리를 잡곤 놀이가 시작되었지요.

엘리스는 생전 이렇게 희한한 크로케 경기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 글썬 땅은 온통 울퉁불퉁하고, 공들은 살아있는 고슴도치들이었고, 타구봉(골프채)은 살아있는 홍학(분홍색 새. 사진링크 ▶ <https://goo.gl/RzyE7z>)이지 뭐예요.

게다가 병사들은 각자 자기 몸들을 바닥에 웅크리더니 손과 발로 지탱해 가며 사방에 골대(원문→아치. 아치=반달모양)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있어요.

엘리스가 발견한 주된 어려움은 홍학을 다루기가 여간 어렵다는 거예요.

여하튼 엘리스가 홍학의 몸통을 팔로 감싸 안았어요. 홍학의 다리가 대롱대롱 매달리긴 했지만요. 그럼 엘리스가 홍학의 목을 곧게 편 다음 그 머리로 고슴도치를 때리고요 하면 홍학이 자기 목을 비틀어 올려선 엘리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표정이 어찌나 엉뚱하던지 엘리스로선 웃지도 그렇다고 울 수도 없었죠.

그래서 엘리스가 다시 홍학의 머리를 아래로 내리고 다시 고슴도치를 때리려고 보니 그새 고슴도치가 네 발로 기어가 버려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가장 난처한 건 땅이 온통 울퉁불퉁해 고슴도치를 그녀가 원하는 쪽으로 굴러보낼 수 없다는 거죠.

더구나 골대들을 형성하고 있던 병사들마저 가만있지 않고 경기장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 바람에, 엘리스로선 곧 이 경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임이란 걸 간파하게 되었죠.

경기자 모두가 저마다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놀이를 시작하다보니 도처에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서로 고슴도치를 가지려고 싸우기까지 했죠.

이 짧은 사이에도 여왕폐하는 역정을 내시며 이 사람 저 사람을 지목해가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이 자의 목을 쳐라!” 또는 “저 자의 목을 쳐라!”라며 1분에 한 명씩 사형선고를 하고 계셨죠.

이러니 엘리스의 기분이 다시 불편해진 건 당연하죠. 또 언제 여왕폐하가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할 지 모르니까요.

‘정말 그리되면 난 어찌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찌 저리도 목을 베는 걸 좋아할까. 저러다 여기 남아나는 사람이 있거나 할까!’

아무래도 도망치는 게 좋을 거 같아 그녀가 사방을 돌아보며 눈치 채지 않게 달아날 길을 찾고 있는데, 공중에 뭔가 신기한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엄청 헛갈리는 모습이었는데, 1~2분이 지나지 싱긋 웃는 모습이 스르르 보여 그녀가 혼잣말로 말했지요.

“체셔(영국 중서부의 주 이름) 고양이구나. 이제사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생겼어.”

“어때 잘 지냈어?”라며 입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타나자 고양이도 말했어요.

엘리스는 고양이의 두 눈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 고개를 끄덕여보여주었어요.

‘두 귀가 다 나타나거나, 아님 한쪽 귀라도 보일 때까지,’라며 그녀가 생각했어요. ‘말을 해도 소용없으니까.’

다시 1분 정도 지나자 고양이의 머리가 온전히 다 보였어요.

그제야 엘리스가 흥학을 내려놓고 크로케 놀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들어줄 상대가 있다는 게 그녀로선 아주 기뻐합니다.

고양이는 머리만 보이는 지금 상태로도 충분하다 여겼는지 더 모습을 들어내진 않았어요.

“이건 공평한 놀이가 아닌 거 같아,”라며 엘리스가 다소 불평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모두들 저렇게 싸우려고만 들잖아… 정해진 규칙도 없고 도와주는 이도 하나 없어…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긴 상황이겠 넌 모를걸. 예를 들면 내가 하나의 골대에 공을 넣고 나면 다음 골대는 어느새 경기장 끝에 가 있다고… 그리고 내가 여왕폐하의

고슴도치를 치려고 보면 어느새 고슴도치가 달아나고 없다고!”

“그래서 여왕은 마음에 드니?”라며 고양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혀,”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그 분은 너무도…” 그 순간 엘리스가 여왕폐하가 가기 바로 뒤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걸 알게 되어 이렇게 말했지요. “...승부욕이 강하셔서 게임에 참 열심이지란다.”

여왕이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으시며 지나가셨어요.

“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니?”라며 왕이 엘리스를 올려다 보고 말하다 고양이의 머리를 보곤 매우 회한해했어요.

“체셔 고양이라고... 제 친구예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인사시켜드릴까요.”

“그 참 인상이 별로다 애,”라며 왕이 말했어요. “하지만 내 손에 키스하려면 하려무나.”

“그닥(그다지).”라며 고양이가 한 마디 했어요.

“저런 건방진,”라며 왕이 말했어요. “그딴 식으로 날 쳐다보지 말거라!”라고 말하며 왕이 엘리스 뒤로 몸을 숨겼어요.

“고양이가 왕을 볼 수도 있다고,”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어떤 책에서 읽은 걸요, 하지만 어느 책이었는지는 저도 기억나지 않네요.”

“음, 없애버렸야겠어.”라고 왕이 결연히 말하더니, 마침 옆을 지나가던 여왕폐하를 불러 말했어요. “여보! 저 고양이 좀 제거해주구려!”

모든 크고 작은 난처한 문제에 대한 여왕폐하의 해결책은 단 하나였지요.

“저 놈의 목을 베라!”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심지어 이 말을 하면서 돌아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럼 내가 당장 가서 사형집행인을 불러오리다.”라며 왕이 좋아라하며 서둘러 사라졌어요.

이때쯤 엘리스가 생각해보니 다시 크로켓 경기에 참석하는 게 좋을 거 같아 경기가 어찌 돌아가나 둘러보니, 저 쪽에서부터 대노한 여왕폐하의 고향 소리가 들려오지 뭐예요.

그건 여왕폐하가 자신(여왕폐하)의 차례를 건너뛰고 플레이한 벌로 세 명의 경기자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광경이었어요.

지금의 난장판 경기가 여왕폐하의 맘에 전혀 안 들었나 봐요. 하긴 게임은 말 그대로 경황들이 없어 대체 어디가 자기 차례인지조차 쉽게 분간이 안가긴 했죠.

그래서 엘리스는 일단 자신의 고슴도치부터 찾아보았어요.

고슴도치는 다른 고슴도치와 싸움을 한창 벌이고 있었어요. 그건 엘리스가 동시에 두 공을 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다만 남은 문제는 엘리스의 홍학이 그새 다른 골대 쪽에 가서는 거기 있던 나무에 날아오르려는 속절없는 노력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스는 홍학을 다시 들고 와 보니 고슴도치 두 마리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하긴 모든 골대들이 경기장 저 쪽으로 가버린 거에 비하면,’라며 엘리스가 생각했어요. ‘고슴도치가 없어진 건 별 문제 거리도 아니긴 해.’

그래서 엘리스는 우선 홍학을 겨드랑이에 끼고 도망 못 가게 한 다음 자신의 친구와 좀 더 대화를 이어가려고 원래 위치로 돌아와 보았지요.

체셔 고양이한테로 돌아온 엘리스는 사람들이 고양이 주변으로 둥글게 잔뜩 모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선 사형집행인과 왕과 여왕폐하 사이에 동시에 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입만 병긋병긋하고 있었죠.

앨리스가 나타나자마자, 세 사람 모두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자기들 주장을 앨리스에게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한꺼번에 와장창 말하는 바람에 앨리스로서 그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고 있네요.

사형집행인의 말로는, “몸통이 없는데 어떻게 목을 자르라는 겁니까? 그런 건 생전 처음 해본다고요.”라는 것이다.

왕의 주장은, “머리가 있으니 얼마든지 벨 수 있는 것을 이 무슨 허튼 소린가.”라는 것이었다.

여왕폐하의 주장은, “이래저래 따지지 말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 있는 모두를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것이었다. 여왕의 이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경악해 표정이 어두웠던 것이다.

엘리스는 이 말밖엔 할 수 없었죠.

“이 고양이는 공작부인의 것이예요. 그러니 그녀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그녀는 지금 감옥에 있지,”라며 여왕폐하가 사형집행인보고 말했어요. “어서 가서 그녀를 데려오거라.”

사형집행인이 화살처럼 출발했어요.

이때쯤 고양이의 머리가 차차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공작부인이 왔을 때쯤엔 고양이의 머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사형집행인은 펄쩍 뛰며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고양이를 찾기 시작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크로케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8장 끝)

※ 위의 동화는, 아래링크의 영어동화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9장. 가짜 거북이의 사연

“널 다시 만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넌 모를 거다, 이 귀여운 것아!”라며 공작부인은 엘리스를 보자마자 팔짱을 딱 끼고 함께 걸으며 말했어요.

엘리스는 공작부인이 기뻐하자 자신도 무척 기뻐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만났을 때 그녀가 그리도 사나웠던 게 아마 후춧가루 때문일 거란 추측을 하게 되었죠.

“내가 나중에 공작부인이 되도,”라며 엘리스가 나뭇 살짜궁 들뜬 목소리로 혼자 말했어요. “절대 음식에 후춧가루를 넣지 못하게 할 거야. 그거 없어도 스프는 맛있을 수 있다고… 아무래도 후춧가루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잘 내는 거 같거든.” 이런 생각을 계속해나가다 결국 새로운 법칙 하나를 발견한 거죠. 기뻐했어요. “그래 식초는 사람을 시큼하게 만들고… 캐모마일(허브차)은 사람을 쓰게 만들지… 그리고… 그리고 ‘보리 물엿’과 사탕들은 아이들의 마

음씨를 사랑스럽게 만든다고, 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좋으련만, 그럼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는 것에 그렇게 인색해하지 않을 텐데, 아시다시피...”

그러다 엘리스는 공작부인일랑은 까마득하게 잊고 말았죠. 그래서 컷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주 가까워서 들리기에 살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말을 잊은 걸 보니, 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애. 이 상황에 맞는 교훈적인 경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지 잘 생각이 나지 않네.”

“아니겠죠.”라며 엘리스가 감히 한 마디 했죠.

“쫓, 쫓, 아가!”라며 공작부인이 말했어요. “네가 찾으려고만 들면 모든 곳에 교훈이 늘려 있단다.”

이 말을 하며 공작부인이 엘리스 옆으로 짝 달라붙이며 압박해오지 뭐예요.

엘리스는 그녀가 너무 가까이 오는 게 반갑진 않았어요. 왜냐면 공작부인이 너무 못생겼기 때문이죠. 이게 첫째 이유고, 둘째 이유는, 공작부인의 키가 정확하게도 엘리스의 어깨 위에 턱을 얹기에 딱 맞는 키였기 때문이지요. 그녀의 턱은 여간 날카롭지 않아 아팠거든요. 하지만 무례할 순 없기에 엘리스는 될 수 있는 한 참았답니다.

대화가 좀 더 이어가다 엘리스가 말했죠. “이제사 게임이 좀 제대로 돌아가려나 봐요.”

“그래,”라며 공작부인이 말했어요. “교훈이 생각났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랑, 사랑이라네!’야.”

“모두가 자기 일에 더 전념하면,”라고 엘리스가 소근거렸어요. “세상이 잘 돌아갈 거라 말하신 분(공작부인)이 누구든가요!”

“오, 그래! 그 둘은 같은 말이야.”라며 공작부인이 자신의 날카로운 턱으로 엘리스의 어깨 위를 내리찍으며 말을 계속 했어요. “이것의 교훈은 이거

지... ‘감각에 귀 기울이면 모든 건 저절로 된다네.’야.”

‘교훈 찾는 걸 무척 즐기시는 분이네!’라며 엘리스가 속으로 생각했죠.

“너 지금 내가 왜 네 허리에 팔을 안 두르는지 생각하고 있구나,”라며 공작부인이 한 템포 쉬더니 말했어요. “그 까닭은 내가 아직 네가 들고 있는 그 홍학(분홍색 새)의 성질머리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이란다. 만져 봐도 되니?”

“물 수도 있어요.”라며 엘리스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하지만 굳이 시도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네 말이 맞아,”라며 공작부인이 말했어요. “홍학들과 겨자는 둘 다 잘 묻지. 이것의 교훈은 이거란다... ”끼리 끼리 어울리네.’야.“

“겨자는 안 묻잖아요.”라며 엘리스가 한 소리 했어요.

“그야 평소엔 그렇지만,”라며 공작부인이 말했어요. “그것(겨자)들이 안 끼는 데가 없다는 걸 너도 알잖겠니!”

여기에

그

“겨자(mine /마인/)는 광물(mineral. 미네랄)이잖아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당연하지,”라며 공작부인이 말했어요. 보아하니 엘리스가 뭘 소리를 해도 옳거니라고 말한 준비가 되어 있어 보였지요. “이 근처에도 큰 겨자 광산(광물을 캐는 곳. mine /마인/)이 있단다. 그러니 이것의 교훈은 이거지… ‘내 것(mine /마인/)이 늘수록 네 것은 준다네.’야.”

“오, 이제 생각났어요!”라며 엘리스가 외쳤어요. 엘리스는 공작부인의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동의해주기 싫었거든요. “그건 야채예요. 야채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그건 분명 야채예요.”

“암 그 말에 동감이고말고.”라고 공작부인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의 교훈은 이거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보단’… 이러려면 간단할수록 좋으니까… ‘네 본성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란 거지.’란다.“

“말씀이 아리송해요, 제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담 좋으련만,”라며 엘리스는 아주 정중하게 말했어요. “종이에 적어주셨다면 더 잘 이해했으련만.”

“그건 또 모르겠구나.”라며 공작부인은 혼자 좋아서 말했어요.

“제발 저 좀 들들볶지 말아주세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오, 그럼 볶는다는 말은 하지 말자구나!”라며 공작부인이 말했어요. “난

원래 말로서 사람들에게 보답을 해주는 사람이거든.”

‘아 정말!’라며 엘리스는 생각했어요. ‘차라리 말 좀 안 걸어주면 좋으련만!’ 하지만 엘리스는 차마 그 말만은 하지 못했죠.

“또 생각하고 있구나?”라며 공작부인이 자신의 예리하고 작은 턱으로 또 꼭 짚으며 말했어요.

“저도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라며 엘리스는 세계 말했어요. 왜냐하면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권리에 대해 말해볼까,”라며 공작부인이 말했어요. “돼지는 날 수 있는 권리가 있고(‘돼지가 하늘을 날 때’라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영어속담), 그리고 교(교훈)…”

하지만 이 부분에서 공작부인의 목소리가 확 기어들어가기에 엘리스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교훈이란 말은 그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단어였기 때문이지요. 동시에 엘리스에게 팔짱 낀 공작부인의 팔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엘리스가 앞을 바라보니 그들 앞에 팔짱을 낀 채 천둥을 수반한 일시적 폭풍우와 같이 오만 상을 찌푸린 여왕폐하께서 떡하니 서 계시지 않겠어요.

“날씨 참 좋네요, 여왕폐하!”라며 공작부인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경고하건데,”라며 여왕폐하가 발로 땅을 땡땡 치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씩 꺼지지 않음 경을 칠 줄 알거라! 어느 쪽인지 정해!”

공작부인은 즉시 달아나버렸지요.

“그럼 우리 게임을 다시 시작할까.”라며 여왕폐하가 엘리스보고 말했어요. 너무 놀란 엘리스는 말 한 마디 병긋하지 못하고서 여왕을 따라 크로케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들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왕을 보자 모두들 기겁을 하고서 다시 경기를 시작했어요. 여왕폐하가 “게으름을 피우는 자는 모두 목을 베겠다”고 호통을 치셨거든요.

경기를 하는 내내 여왕폐하는 한시도 다른 경기자들과 마찰을 빚지 않을 때가 없었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이 자의 목을 베라!” 또는 “저 여자의 목을 베라!”라며 외쳐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선고를 받은 자들을 감방에 가두는데 병사들이 투입되다 보니 결국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골대가 하나도 남아나지 않았고, 살아남은 경기자들은 왕과 왕비 그리고 엘리스 다 다녔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사형선고를 받아 수감된 상태였답니다.

그때쯤 꽤 숨이 차신 여왕폐하도 자리를 떠나며 엘리스에게 말했어요. “그래 가까 거북이를 본 적이 있더냐?”

“아니오.”라고 엘리스가 말했어요. “가짜 거북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걸요.”

“가까 스프를 만들 때 넣는 게 바로 가짜 거북이다.”라고 여왕폐하가 말했어요.

“한 번도 본 적도 그리고 들은 적도 없어요.”라고 엘리스가 말했어요.

“그럼 가자꾸나.”라고 여왕폐하가 말했어요. “가짜 거북보고 네게 자기 사연을 말해주라 내 이르겠다.”

그녀들이 함께 자리를 떠는 사이, 엘리스의 귀에, 왕이 낮은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희들을 모두 사면하노라.”

“아, 다행이다!”라며 엘리스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녀는 정말 여왕폐하가 너무 많은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해 무척 우울하던 차였거든요.

그들은 이내 곧 햇볕에 잠들어 있는 그리핀(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머리를 한 괴물)을 발견해냈어요.

만약 그리핀을 모르신다면 이 그림을 보아주세요.(←원문에 있는 문장임)

“일어나, 이 게으른 것아!”라며 여왕폐하가 말했어요. “어 어린 숙녀 분을

데리고 가짜 거북이한테 가서 그의 사연을 들려드리거라. 난 돌아가서 사형 선고가 잘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다.”

여왕폐하가 가버리자, 엘리스는 그리핀과 혼자만 남게 되었어요.

엘리스는 생전 이렇게 생긴 괴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잔인한 여왕폐하보단 이 그리핀과 같이 있는 게 더 안전한 거 같았죠. 그래서 엘리스는 기다려보았어요.

그리핀은 앞으로 눈을 비볐어요. 그런 다음 여왕폐하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킁킁 거리며 웃었어요.

“정말 재밌어!”라며 그리핀이 말했어요. 그건 반쯤은 자신에게 그리고 반쯤은 엘리스를 보고 하는 말 같았어요.

“뭐가 그리 재밌으세요?”라고 엘리스가 말했어요.

“왜긴, 여왕이지,”라며 그리핀이 말했어요. “그건 모두 그녀의 상상이란다. 절대 아무도 사형당하지 않지.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우선 가자, 어서!”

‘여긴 모두가 내게 ‘어서!’라고 말을 하네, 참.’라고 엘리스가 그리핀을 천천히 뒤따르며 생각했어요. ‘내 생전 이토록 많은 명령을 받아보긴 또 처음이야!’

멀리가지 않아 저 멀리에 슬픈 표정으로 홀로 작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가짜 거북이가 보였어요.

가까워짐에 따라 그가 가슴이 찢어진다는 듯 푹푹 한숨을 쉬고 있는 게 들렸어요.

엘리스는 그가 너무도 가여워, “왜 저러세요?”라고 그리핀에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리핀이 자신이 좀 전에 했던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건 모두 그의 상상이야, 슬픈 건 실제로 하나도 없지, 자, 어서 가보자

고!”

그들이 가짜 거북이에게 가자, 가짜 거북이 큰 눈망울들을 머금은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보는데 아무 말이 없네요.

“이 어린 숙녀분이,”라며 그리핀이 말했어요. “자네의 사연을 듣고 싶어
한다네, 들려드리게나.”

“그럼 들려줘야지,”라며 가짜 거북이 힘없는 말투로 말했어요. “둘 다, 앉
게나, 부디 내 얘기가 다 끝날 때까지 말을 꺼내지 말게나.”

그들은 앉아 잠시 말없이 있었어요.

엘리스가 속으로 생각했지요.

‘대체 시작도 안한 사연이 언제 끝난다는 걸까.’

하지만 엘리스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보았죠.

여기에 그림 있음

그리고도 아주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고, 이따금씩 그리핀이 “흐르르르!” 라는 웬 괴성을 질러 정적이 깨지긴 했어요. 하지만 가짜 거북이의 무거운 흐느낌은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되었답니다.

정말이지 엘리스는 당장에라도 일어나 “감사합니다, 재미난 얘기 잘 들었어요.”라고 말해버리고 가버리고 싶었지만, 막상 생각해보니 가도 별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꼭 참고 입 다물고 앉아있었죠.

“우리가 어릴 적에만 해도,”라며 마침내 가짜 거북이(바다거북)가 아주 고요하면서도 여전히 때때로 흐느끼면서 말을 시작했지요. “바다 속에 있는 학교엘 다녔었지. 선생님은 늙은 거북(바다거북)이었는데... 우린 그를 땅거북(땅에 사는 거북)이라 불렀지...”

“아니 왜 땅에 사는 거북도 아닌데 땅거북이라 부르신 거예요?”라고 엘리스가 물었어요.

“우리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땅거북이라 부른 거지.”라며 가짜 거북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넌 어쩜 그리고 아둔하니!”

“그런 간단한 걸 묻다니, 창피한 줄 알거라.”라며 그리핀 또한 한 마디 했어요.

그런 다음 둘은 함께 입을 꼭 다물고 앉아선 가련한 엘리스를 찌려봤어요. 정말이지 엘리스는 땅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마침내 그리핀이 가짜 거북이한테 말했어요.

“얘기 계속하게, 형씨! 하루 종일 얘기할 건 아니잖는가!”

그리하여 가짜 거북이의 얘기가 계속되었답니다.

“그래, 우리들은 바다 속 학교엘 다녔어요, 비록 너야 안 믿길 테지만 말 이야...”

“안 믿긴다고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요!”라며 앨리스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지금 말했잖니.”라며 가짜 거북이가 말했어요.

“입 좀 다물거라!” 앨리스가 또 한 마디 하려고 하자 그리핀이 덧붙였어요.

가짜 거북이가 얘기를 계속했죠.

“우리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었단다… 사실, 학교도 매일 갔었을 정도니까…”

“저도 학교(주간학교)엔 매일 가는데요,”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그러니 굳이 그걸 빼기시지 말라고요.”

“그럼 방과 후 수업도 받았니?”라며 살짝 걱정스런 눈빛으로 가짜 거북이가 물었어요.

“당연하죠,”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저흰 프랑스어와 음악을 배웠어요.”

“그럼 빨래는?”라며 가짜 거북이가 말했어요.

“그딴 게 어딴데요!”라며 앨리스가 발끈해선 말했어요.

“오오! 그럼 너희 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가 아니군.”라며 가짜 거북이가 아주 안심한 듯한 말투로 말했지요. “우리들이 다닌 학교 청구서 끝엔 ‘방과 후 수업 - 프랑스어, 음악, 그리고 빨래’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

“아니 바다 아래에서 사셨다면서,”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굳이 빨래할 게 많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난 방과 후 수업을 들을 시간이 없었단다,”라며 가짜 거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난 정규 과목들만 들었으니까.”

“아니 그건 또 뭔데요?”라며 앨리스가 따졌어요.

“물론 읽기와 쓰기는 기본이었고,”라며 가짜 거북이가 대답했어요. “그리

고 다른 과목들로는 셈(수학)… 야망, 주의 산만, 못생겨지기, 그리고 웃음거리가 있었지.”

“‘못생겨지기’는 처음 듣는데요.”라며 엘리스가 감히 했어요. “그게 뭐죠?”
그 말에 그리핀이 두 손을 다 들며 기겁을 하면서 소리쳤어요.

“아니! 어떻게 ‘못생겨지기’를 모를 수가 있지! 너 그럼 ‘예뻐지기’는 아니, 가령?”

“네,”라며 엘리스가 어렴풋하게라도 안다는 듯 말했어요. “그건… 뭔가… 더… 예뻐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도,”라며 그리핀이 계속 말했어요. “‘못생겨지기’를 모른다니, 너 정말 바보 아니니.”

이쯤 되고 보니 이걸로 더 질문하고 싶지 않아진 엘리스가 가짜 거북이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어요.

“그밖에 또 무얼 배우셨나요?”

“우선, 수수께끼란 과목이 있었지.”라며 가짜 거북이가 자신의 널찍한 지느러미들로 숫자를 세리며 대답했어요. “…옛날 바다의 수수께끼와 현대 바다의 수수께끼가 있었고, 그런 다음 ‘느릿느릿 걷기’가 있었지… 느릿느릿 걷기 선생님은 나이 많으신 붕장어(‘아나고’라고 불리는 물고기)이셨지, 그 분이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우리가 느릿느릿 걷는 것과, 몸을 쪽쪽 펴는 것과, 그리고 전기코일에 감겼을 때 까무러치는 걸 가르쳐주셨단다.”

“아니 그게 다 뭔데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아쉽군, 이제는 나도 몸이 굳어,”라며 가짜 거북이가 말했어요. “시범을 보여줄 순 없으니 말이야. 이것들은 다 그리핀도 배우지 못한 과목들이지.”

“저흰 시간이 없었으니까요.”라며 그리핀이 말했어요. “저희들의 고전어(그리스 로마 고전) 과목 선생님은 나이 든 게(바닷가에서 옆으로 걷는 게)

였지.”

“난 그 분한테 안 배웠네.”라며 가짜 거북이가 한 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분은 웃는 법과 비통해하는 법을 가르치셨다고 그러더군.”

“네 맞아요, 그랬어요.”라며 그리핀이 자기도 한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두 동물 모두 두 손에 얼굴을 파묻는 거 있죠.

“하루에 수업은 몇 시간씩이셨는데요?”라며 앨리스가 황급히 대화주제를 바꾸며 말했어요.

“첫째 날은 10시간이었지,”라며 가짜 거북이가 말했어요. “그 다음날엔 9시간, 그런 식이었어.”

“그 참 희한한 시간표네!”라며 앨리스가 탄성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수업(lessons /레슨z/ . z=ㅈ)이라 불리는 거지,”라며 그리핀이 한 마디 거들었어요. “매일 매일 줄어드니까(lessen /레슨/).”

그 참 희한한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앨리스는 다음 발언을 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해 봐야 했습니다.

“그렇담 11번째 날은 휴일인가요?”

“물론이지.”라며 가짜 거북이가 말했어요.

“그렇담 12번째 날엔 어떻게 되는데요?”라며 앨리스가 진심으로 물었어요.

“자 그럼 이것으로 수업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라며 그리핀이 결연한 말투로 대화를 제지하고 나서며 말했어요. “그녀에게 이젠 경기에 관한 얘길 해주라고.”

(9장 끝)

10장. 바닷가재의 카드리유(사교댄스 이름)

가짜 거북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자신의 지느러미로 두 눈을 가렸어요. 그러더니 앨리스를 보며 뭔가 얘기를 꺼내려 하더니 이내 또 1~2분 동안 목을 삼키며 흐느꼈지요.

“목에 가시가 걸린 거 같아.”라며 그리핀(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머리를 한 괴물)이 말하더니 거북이를 흔들며 등도 두들겨주었지요.

마침내 가짜 거북이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두 뺨으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바다 아래에서 산 적이 없을 테니…”

“산 적 없어요.”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그림 바닷가재를 만나본 적도 없겠구먼...”

“맛본 적은 있는...”라고 말을 꺼내다 말고 엘리스는 아차 싶어 급히 입을 다물곤, “네, 한번도 없어요.”라고 말했지요.

“...그렇담 바닷가재가 추는 카드리유(사교댄스 이름. 19세기 프랑스 궁정에서 유행)가 얼마나 기똥차게 재밌는지도 하나도 모르겠군!”

“전혀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어떤 종류의 춤인데요?”

여기에 그림 있음

“그러려면,”라고 그리핀이 말했어요. “우선 해변을 따라 길게 한 줄로 쪽 늘어서야 된단다…”

“두 줄이야!”라며 가짜 거북이가 소리쳤어요. “물개들과, 거북이들과, 연어와 기타 등등이 늘어서지. 그런 다음 방해꾼들인 해파리들을 말끔히 치우는 거지…”

“그건 보기엔 그래도 시간이 꽤 걸린단다.”라며 그리핀이 끼어들며 말했어요.

“...두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고…”

“춤 파트너는 바닷가재 한 명씩이란다!”라며 그리핀이 큰소리로 말했어요.

“물론이지,”라며 가짜 거북이가 말했어요. “파트너들 쪽으로 두 발작 나아가고…”

“...그럼 바닷가재들을 바꾼(파트너 체인지) 다음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는 거지.”라며 그리핀이 계속 말했어요.

“그럼 알다시피,”라며 가짜 거북이가 말을 이었어요. “냅따 던지는 거지…”

“바닷가재들을!”라며 그리핀이 허공에다 대고 집어던지는 흉내를 내며 소리질렀어요.

“...가능한 한 멀찍이 던지는 거야, 바다 저 멀리로…”

“그리곤 바닷가재들을 향해 헤엄쳐가는 거지!”라며 그리핀이 비명을 질러댔어요.

“바다 속에서 공중제비를 돌고!”라며 가짜 거북이가 팔짝팔짝 뛰어오르며 소리쳤어요.

“다시 바닷가재들을 바꾼(파트너 체인지) 다음!”라며 그리핀이 까짓것 외쳤어요.

“다시 육지까지 돌아오는 거지, 정말 볼만 했는데 말이야.”라며 가짜 거북이의 목소리가 급다운되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좀 전까지만 해도 그때로 돌아간 듯 사방팔방으로 뛰던 두 동물이 아주 슬프고 말이 없어져선 다시 주저않은채로 앨리스를 말뚱말뚱 쳐다봤어요.

“아주 근사한 춤이었나 봐요.”라고 앨리스가 살짝 주눅이 들어 말했지요.

“좀 보고 싶지 않니?”라며 가짜 거북이가 말했어요.

“정말요.”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어때, 한 번 신나게 추어보자고!”라며 가짜 거북이가 그리핀보고 말했어요. “바닷가재 없이도 우린 출 수가 있지. 자네가 노래해볼 텐가?”

“오, 당신이 노래하세요.”라며 그리핀이 말했어요. “전 가사들을 다 까먹었는걸요.”

그러더니 그들은 앨리스를 빙빙 돌며 장중한(엄숙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스텝을 밟는 동안 손들을 흔들며 너무 가까이 다가왔기에 매번 앨리스의 발을 밟고 말았죠.

가짜 거북이의 노래는 아주 느리고 그리고 슬펐답니다...

(두 줄 띄움)

(노래 시작)

“좀 더 빨리 걸을까?”라며 대구(물고기이름. whiting=대구=희게 하는. 이

걸로 말장난을 하고 있음)가 달팽이에게 말하네.

“우리 뒤에 돌고래가 너무 딱 붙어 제 꼬리가 자꾸 그에게 밟혀요.
바닷가재들과 거북이들이 나아가는 저 모습 좀 봐요!
해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들… 우리도 어서 가서 춤을 춰 보세나?”

(한줄 띄움)

출까, 추지 말까, 출까, 추지 말까, 함께 춤을 추세나?
출까, 추지 말까, 출까, 추지 말까, 함께 춤을 추세나?

(한줄 띄움)

“어찌나 즐거운지 할 말이 없네
그들이 우리 바닷가재들을 집어 들더니 냅따 던지네, 바다 저 멀리!”
그러자 달팽이가 결눈질을 하며 말하지 “너무 멀어, 너무 멀다고!”
그래서 달팽이는 대구에게 고맙다 말하고선 춤에는 합류하지 않네.

(한줄 띄움)

안 출래, 안 춘다고, 안 출거야, 안 추겠다고, 춤 안 춘다니까.
안 출래, 안 춘다고, 안 출거야, 안 추겠다고, 춤 안 춘다니까.

(한줄 띄움)

“먼 게 무슨 문제야?”라며 그의 친구 비늘투성이(물고기)가 대꾸하네.

“저기 맞은편에 다른 해변이 보여.

여기선 영국으로부터는 더 멀고 프랑스에 더 가깝다네…

아연질색해하지 말고 어서 와 춤에 합류하게나, 사랑하는 달팽이여.

(한줄 띄움)

출까, 추지 말까, 출까, 추지 말까, 함께 춤을 추세나?

출까, 추지 말까, 출까, 추지 말까, 함께 춤을 추지 않겠나?

(노래 끝)

(두줄 띄움)

“고마워요, 보기에 정말 좋은 재미난 춤이었어요.”라며 춤이 끝난 것이 너무 기뻐 엘리스가 말했어요. “대구(물고기)에 관한 신기한 노래라면 저도 들은 거 같아요!”

“오, 대구라.”라며 가짜 거북이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너도 그들을 예전에 어디선가 봤다는 얘기구나, 그치?”

“네,”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자주 본 걸요, 저녁식…” 그녀가 서둘러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녁식 이 대체 어디 있는 장소인지는 모르겠다만,”라며 가짜 거북이가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자주 봤다고 하니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겠누

나.”

“그럼요,”라며 엘리스가 생각에 잠기며 대답했어요. “꼬리를 입에 물고 있잖아요… 빵가루를 온몸에 묻힌 채요.”

“빵가루는 아니지,”라며 가짜 거북이가 말했어요. “빵가루는 바닷속에서 금방 씻겨나가지 않니. 하지만 꼬리를 입에 물고 있다는 건 맞다, 다 이유가 있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짜 거북이는 하품을 하더니 이내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 얘기는 자네가 하거나.”라며 그가 그리핀보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라며 그리핀이 말했어요. “대구들이 바닷가재와 함께 어울려 춤을 추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바닷가재는 바다 저 멀리까지 날아가는데 대구들만은 중간지점에서 똑하고 떨어지고 말았지. 그러니 대구들은 꼬리를 입에 물게 되었고 다시 뱉어내지 못한 거지. 그게 다애.”

“고마워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재밌네요. 전엔 대구를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 많이 알게 된 기분이에요.”

“너만 바란다면 대구에 관한 얘길 더 해줄 수도 있지.”라며 그리핀이 말했어요. “너 왜 그들을 대구(whiting. 희게 하는)라고 부르는지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왜죠?”

(이탈릭체)“그건 장화(긴 신발)와 구두 때문이야.”라며 사뭇 진중한 말투로 그리핀이 대답했어요.

엘리스로선 아리송한 얘기였죠. “장화와 구두 때문이라고요!”라며 의아하다는 듯 엘리스가 되풀이해 말했어요.

“그래, 넌 구두를 뭐로 닮니?”라며 그리핀이 말했어요. “내 말인즉슨 무엇으로 광을 내느냐야?”

엘리스가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보더니 대답을 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보는

눈치였어요.

“검정 구두약으로 닦으시는 거 같던데요.”

“바다 속에선 장화와 구두를,”라며 그리핀이 갑자기 은밀한 말투로 이어 말했어요. “대구(=whiting=‘희게하는’. 단어가 같은 것을 빗댄 말장난임)로 그렇게 한단다. 자 이제 알았겠지.”

“그럼 대구는 뭐로 만드는데요?”라며 엄청 진지한 말투로 엘리스가 물었어요.

“그야 물론, 가자미(옆으로 납작한 물고기)와 뱀장어들이지.”라며 살짝 화를 내며 그리핀이 대답했어요. “바보 새우도 너보단 더 알 거다., 어떻게 그것도 모르니.”

“만약 제가 대구였다면,”라며 여전히 노래가사에 취해 있던 엘리스가 판 생각을 하며 말했지요. “돌고래보고, ‘좀 떨어지세요, 지금 제 발을 밟으셨다고요!’라고 분명히 말해주었을 텐데!”

“그야 상황마다 다르지,”라며 가짜 거북이가 말했어요. “어떤 물고기들도 돌고래들 없이 이동하지 않으려들거든.”

“정말요?”라며 엘리스가 사뭇 놀랐다는 듯 말했어요.

“당근이지.”라며 가짜 거북이가 말했어요. “보자, 어떤 물고리가 나를 찾아와 ‘제가 곧 여행을 떠나려합니다’라고 말한다면 내 대답은 이거라네, ‘돌고래(porpoise . 발음→/폴퍼스/)랑?’”

“뫼트(purpose. /뫼퍼스/)땀시?를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농담이 아냐.”라며 가짜 거북이가 기분이 상한 듯 토라지며 대답했어요.

이에 그리핀이 급히 “자, 그럼 이제 네(엘리스) 모험들에 관해 들려주라고.”라고 말했지요.

“그거라면 오늘 아침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라며 엘리스가 살짝 기가 죽은 듯 말했어요. “사실 어제와 지금의 저는 사뭇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딴 말이 어딴, 자세히 좀 설명해봐.”라며 가짜 거북이가 말했어요.

“안 돼, 안 돼! 설명보단,”라며 그리핀이 성마르게 말했어요. “모험얘기가 먼저라고.”

그래서 엘리스는 자신이 흰토끼를 처음 본 걸 시작으로 자신의 모험얘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름 살짝 긴장도 되었는데, 두 동물이 눈을 말뚱말뚱 뜬 채 입까지 크게 벌리고 가까이 다가와 경청하자 용기가 났죠.

그녀가 “연로하신 윌리엄(남자이름) 아버지”(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 나오는 시이름)라는 시를 언급할 때까지 두 청취자들은 귀 기울여 듣고 있었죠.

그리고 애벌레 얘기가 나오고 이어 다른 새로운 얘기가 시작되려 하자 곧 가짜 거북이가 푹썩 숨을 삼키더니 말했어요.

“그 참 궁금하군.”

“정말 궁금해요.”라며 그리핀도 거들었어요.

“그래 궁금해!”라며 가짜 거북이가 생각에 잠겨 거듭 말했어요. “지금 그 시를 그녀의 말로 다시 듣고 싶군. 저 애에게 물어보라 말해주게나.”라며 가짜 거북이는 그리핀 보고 말했어요. 아마 가짜 거북이가 생각하기에 그리핀의 말이라면 권위가 있기에 엘리스가 따르리라 여기는 모양이에요.

“자 일어나서 물어보거라, *(이탈릭체)* ‘케으름쟁이의 노래’를.”라며 그리핀이 말했어요.

‘그 참 명령하는 걸 좋아하는 동물들이네, 꼭 수업 듣는 거 같다고!’라며 엘리스는 생각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학교에 있는 게 나으련만.’

하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바닷가재의 카드리유(사교댄스 이름)”로 가득 차 있어 그녀는 자신이 무얼 읊조리고 있는 지도 모른 채 말을 하고 있었고 급기야 아주 희한한 단어들의 나열이 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릴 해대고 있었답니다...

여기에 그림 있음

(두줄 띄움)

(노래 시작)

“이건 내가 분명 들은, 바닷가재의 노래라네,
‘너를 너무 갈색으로 구웠나봐, 설탕을 좀 뿌려야겠어.’
눈꺼품을 가진 오리처럼 코를 가진 바닷가재
허리띠와 단추를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꺼내라고.”
모래가 모두 마르면, 그는 종달새처럼 들뜬다네,
그럼 상어의 경멸적인 말투로 얘기하겠지,
하지만 바닷물이 밀려들고 상어가 주변에 어슬렁거리면,
바닷가재들은 소심해져 목소리가 떨어온다네.

(노래 끝)

(두줄 띄움)

“그 참 우리 어릴 적일량은 많이 다르구먼.”라며 그리핀이 말했어요.

“나도 생전 처음 듣는 노래인걸.”라며 가짜 거북이가 말했어요. “뭘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군, 완전히 허무맹랑해.”

엘리스로선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자리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말았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자연스레 벗어날까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군 그래.”라며 가짜 거북이가 말했어요.

“그녀는 설명 할 수 없어요.”라며 그리핀이 서둘러 말했어요. “그러니 다음 시로 넘어가자고요.”

“하지만 바닷가재의 엄지발가락은 어찌고?”라고 가짜 거북이가 주장했어요. “또 바닷가재가 자기 코를 어떻게 꺼낸다는 거지, 너도 그리 생각하잖니?”

“춤 출 때 자세를 설명한 거였어요.”라며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한 말이 끔찍이 당황스럽던 엘리스가 주제를 바꾸고 싶어 말했어요.

“그래 다음 시로 넘어가세.”라며 그리핀이 성마르게 다시 말했어요. “그래 그건 ‘난 그의 정원을 스쳐 지나갔네.’로 시작하지 않던.”

그건 아닌 거 같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엘리스는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어나갔답니다...

(두줄 띄움)

(엘리스의 시 시작“)

”난 그의 정원을 눈도장을 찍으며 스쳐 지나갔네,

올빼미와 표범이 파이를 나눠먹고 있는 곳...“

표범이 파이 껍질과 고기와 국물을 먹는 사이,

올빼미가 자기 몫을 접시에 담네.

파이를 다 먹었을 때, 요긴하게도 올빼미는

스푼을 선물 받았네.

반면 표범은 투덜거리다 나이프(칼)와 포크를 받았다네.

그것이 연회(만찬)의 결론이라네...

(앨리스의 시 끝)

(두줄 띄움)

“그런 잡동사니들을 받아서 뭐하게,”라며 가짜 거북이가 또 끼어들며 말했어요. “추가 설명 없인 대체 뭘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내 생전 이렇게 헛갈리는 시는 또 처음이야!”

“그래, 나도 네가 그쯤해서 멈췄으면 한다.”라며 그리핀도 끼어들었어요.

그리하여 앨리스는 너무도 기쁘게도 그만둘 수 있었답니다.

“그럼 우리 바닷가재의 카드리유(사교댄스 이름)에 대한 비유나 계속 해볼까?”라며 그리핀이 말했어요. “그렇지 않음 가짜 거북이 자네가 한곡 더 부르던가 말일세?”

“오, 가짜 거북님 부디 노래해주세요.”라며 앨리스도 부탁했어요.

앨리스가 너무 열정적으로 부탁하는 게 못내 살짝 맘 상했는지 그리핀이 말했어요.

“흠! 취향 참 가지가지군! 어쩐가, 형씨, 그녀에게 “거북이 수프(고깃국)” 노래를 들려주겠나?”

가짜 거북이 깊은 한 숨을 몰아쉬더니 이따금씩 흐느낌을 삼키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두줄 띄움)

(‘거북 수프’란 노래 시작)

“맛있는 수프, 영양 많고 싱싱한 수프가,
뚜껑 달린 움푹한 그릇에 담겨 있네!
이 맛에 안 넘어갈 사람 있나?
저녁의 수프, 맛있는 수프!
저녁의 수프, 맛있는 수프!
마아 — 있는 수우 — 푸우!
마아 — 있는 수우 — 푸우!
저 — 어 — 녀역(저녁)의 수우 — 푸우(수프),
맛있고, 맛있는 수프!”

(한줄 띄움)

“맛있는 수프! 생선 좋아하는 사람들,
오시게, 한 접시 더 드릴까?”

두 접시 더 드릴까

맛있는 수프가 딱 2천원(원문→1페니)이야?

맛있는 수프가 딱 2천원(원문→1페니)이야?

마아 — 있는 수우 — 푸우!

마아 — 있는 수우 — 푸우!

저 — 어 — 녀역(저녁)의 수우 — 푸우(수프),

맛있고, 마아 — 있는 수프!”

(‘거북이 수프’라는 노래 끝)

(두줄 띄움)

“다시 한 번 합창!”라며 그리핀이 외치자, 가짜 수프가 이 노래를 처음부터 다시 부를 때, 때마침 저 멀리에서 고함소리가 들려왔어요.

“재판이 시작됐다!”

“어서 가보자!”라며 그리핀이 앨리스의 손을 잡고 소리치더니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가짜 거북이의 노래가 끝나길 기다리지도 않고 말이죠.

“무슨 재판인데요?”라며 앨리스가 헐떡이며 뛰어가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리핀인 이렇게만 말해줄 뿐이었지요.

“서둘러 어서!”

그러면서 그리핀은 더 빨리 달려갔답니다.

그러는 사이 점점 희미하게 산들바람을 타고서 슬픈 노랫가락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요…

(두줄 띄움)

(‘거북이 수프’란 노래 이어서 계속 시작)

“저 — 어 — 녀역(저녁)의 수우 — 푸우(수프),
맛있고, 맛있는 수프!”

(두줄 띄움)

(‘거북이 수프’란 노래 끝)

(10장 끝)

※ 위의 동화는, 아래링크의 영어동화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11장. 누가 ‘과일 파이’(타르트)들을 훔쳤나?

그들(그리핀과 엘리스)이 도착했을 때 보니, 하트(♥) 왕과 왕비가 ‘왕의 의자’에 앉아 있고, 그들(왕과 왕비) 주위로 수많은 무리(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작은 새들이거나 작은 동물들이었죠. 물론 카드 병사들도 왕창 와 있었어요.

그들 앞엔 잭(카드놀이의 잭)이 쇠사슬에 칭칭 감긴 채 양쪽에 병사들의 감시를 받으며 서 있었어요.

왕의 가까이엔 흰 토끼가 한 손엔 트럼펫과 다른 손엔 긴 두루마리 양피지(동물 가죽으로 만든 종이)를 쥐고 있었죠.

법정 한 복판엔 과일 파이(타르트)들이 담긴 커다란 접시 하나가 놓인 탁자가 있었는데, 무척 먹음직스러보여 앨리스는 꿈침을 삼키고 말았답니다...

‘얼른 재판이 끝나,’라고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먹을 걸 나눠주면 좋으려만!’

하지만 그럴 일은 전혀 없어 보였죠, 그래서 앨리스가 자기 주변을 두루 둘러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대기시간이 후딱 지나갔답니다.

앨리스는 생전 재판정에 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책으로만 그런 게 있다는 걸 읽은 게 다였죠.

그렇지만 그녀는 그럭저럭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알 수 있었던 것에 무척 만족했지요.

“저 분이 판사님이실 거야,”라고 그녀가 혼잣말을 했어요. “왜냐면 긴 가발을 쓰고 계시잖아.”

그런데 가만 보니 판사님이 다름 아닌 왕이셨어요. 그는 가발 위에 왕관을 쓰고 있었지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림을 봐주세요. ←원문에 괄호 안에 있는 문장임) 왕은 정말이지 하나도 안 편안해보였답니다. 확실히 계속 편치 않아 보일 거 같았죠.

‘그리고 저긴 배심원석일 거야,’라며 앨리스가 생각했어요. ‘저기 12명의 각종 동물과 새들이 앉아 있는 곳 말이야.’

그녀가 굳이 동물과 새들이라고 말한 것은, 배심원들의 상당수가 정말 동물들이었고, 또 나머지가 새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 저들이 배심원이 틀림없어.”

이 마지막 말을 그녀는 두세 번 더 반복해 말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단번에 알아맞힌 게 신기해서였죠. 왜냐면 앨리스 자기 또래의 여자애들이었다면 절대 배심원이 뭔지 몰랐을 거거든요.

하지만 배심원님들이라고 말했음 더 좋을 건데 말이죠.

지금 그 12명의 배심원들은 각자 석판 위에 뭘 쓰느라 분주했어요.

“대체 뭘 저리 쓰시고 계신 거죠?”라며 엘리스가 그리핀(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머리를 한 괴물)에게 소근거렸어요.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저분들은 뭘 저리 열심히 적고 계신 건가요.”

“자기 이름들을 적고 있지,”라며 그리핀이 속삭이며 대답해주었어요. “왜냐면 지금 쓰놓지 않음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이름을 까먹을 수도 있거든.”

“바보 같은!”라며 엘리스가 발끈해선 큰 소리고 말했다가 급히 입을 다물었어요.

왜냐면 흰토끼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법정에선 정숙(조용하세요)!”

왕도 안경을 끼시더니 대체 누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보시려고 주변을 근심스럽게 둘러보셨답니다.

여기에 그림 있음

그림설명 : 전령(명령을 전달하는 자. 사자)으로 분장한 흰 토끼가 트럼펫을 불고 있어요.

앨리스가 배심원들의 어깨 너머로 보니 배심원들이 하나 같이 다들 자기 석판 위에 “바보!”라고 적고 있지 뭐예요. 게다가 그들 중 아무도 ‘바보’라는 글자를 제대로 아는 이가 없어 서로 옆에 있는 배심원 거를 베끼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정말 저런 식이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다 적을 수 있을 지 의문이야!’라고 앨리스는 생각했지요.

배심원들 중 한 명은 아주 킁킁 소리가 나는 연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킁킁 대는 소리가 견딜 수가 없던 앨리스가 법정을 돌아서 그 배심원 뒤로 가 꾀사게 연필을 낚아채 버렸어요.

앨리스가 너무도 재빠르게 연필을 빼앗았기에 그 불쌍한 배심원인, 꼬마 도마뱀 빌(앨리스가 몸이 커져 흰 토끼의 집안에 갇혔을 때, 흰 토끼가 상황을 알아보려 꼬마 도마뱀 빌을 굴뚝으로 들여보냈는데, 그만 앨리스가 발로 굴뚝 속을 걷어차서, 꼬마 도마뱀 빌이 하늘을 날아가버린 일이 있었음. 4장 참조 바람. 4장 링크 ▶ <http://blog.naver.com/osy2201/221022618146>)은 처음에 무슨 일이 자신에게 벌어진 줄도 모르고 계속 적는데 아무 것도 안 적혀지지 뭐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자기 연필을 찾아 보았지만 못 찾고 그 날 하루 종일 자신의 손가락 끝으로 석판 위에 이름을 적어야했답니다. 아시다시피 석판 위에 손가락 자국이 남을 리 없잖아요, 즉 꼬마 도마뱀 빌의 노력이 하등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전령(심부름 하는 사람), 죄명을 읽으시오!”라고 왕이 말했어요.

이에 흰 토끼가 트럼펫을 세 번 세게 불더니, 들고 있던 두루마리 양피지를 펼쳐 다음과 같이 읽어내려갔어요...

(한 줄 띄움)

“하트(♥) 여왕폐하께서 과일 파이(타르트)들을 만드셨네,
여름철 내내.
그 과일 파이들을 하트 잭이 훔쳤다네,
하나도 남김없이 죄다!”

(한 줄 띄움)

“배심원들은 평결(죄의 있고 없음을 평가)들을 하시오.”라고 왕이 배심원들에게 말했어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세요!”라며 흰토끼가 서둘러 체지하며 말했어요. “그러기 전에 할 일이 많으십니다요!”

“첫 번째 증인을 들라하라,”라고 왕이 말했지요.

그러자 흰토끼가 트럼펫을 세 번 불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첫 번째 증인은 들라!”

그 첫 번째 증인은 모자장수였어요.

그는 한 손엔 찻잔을 다른 손엔 버터를 바른 빵은 한 조각 들고서 입장했어요.

“죄송합니다, 폐하,”라며 그가 입을 열었어요. “음식을 들고 왔네요. 전령을 보내셨을 때가 아직 다과회(차 마시기)가 끝나지가 않았을 때라 말이죠.”

“그런 건 다 먹고 왔어야지,”라며 왕이 말했어요. “그래 다과회는 언제 시작한 건가?”

모자장수가 3월 토끼를 쳐다보았어요. 막 3월 토끼가 겨울잠쥐와 팔짱을 끼고 뒤따라 들어왔거든요.

“제 생각엔 그게 아마 3월 14일이었을 겁니다.”라며 모자장수가 말했어요.

“15일이야.”라며 3월 토끼가 말했어요.

“16일이겠지.”라며 겨울잠쥐도 한 마디 덧붙였어요.

“기록하십시오.”라고 왕이 배심원들에게 말하자, 배심원들이 열심히 날짜 세계를 다 석판에 적더니 더하기를 해 그게 몇 만원 몇 천원인지로 바꿔 대답했어요. 말도 안 되고 소리였죠.

“모자를 벗게.”라며 왕이 모자장수에게 말했어요.

“제 게 아닌데요.”라며 모자장수가 말했지요.

“흠쳤구나!”라며 왕이 큰 소리로 말하더니 배심원석을 돌아보자, 배심원들이 즉각 그 사실을 메모로 남겼어요.

“죄다 팔려고 내놓은 겁니다요.”라며 모자장수가 추가설명을 덧붙였어요. “그러니 모두 제 게 아닌거죠. 저는 모자장수거든요.”

이 부분에서 여왕폐하가 안경을 찾아 끼시더니 모자장수를 찬찬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통에, 모자장수의 얼굴이 새파래지고 안절부절 못해하는 게 보였어요.

“불안해하지 말고,”라며 왕이 말했어요. “증거를 대시게. 그렇지 않음 자네에게 사형을 선고안할 수가 없다네.”

이 말에 모자장수의 용기가 더 줄어들었고 이젠 두 발을 번갈아가며 폴짝거리면서 여왕폐하를 걱정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지요. 이렇게 버둥대다 모

자장수는 그만 버터 바른 빵을 한 입 베어먹는다는 걸 찻잔을 깨물고 말았
답니다.

이 순간 엘리스는 기분이 무척 이상해졌어요. 그게 뭔지 알아차릴 때까지
엄청 헛갈렸죠. 그건 바로 그녀가 또 커지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녀는 우선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금
방 든 생각은, ‘그래 굳이 나갈 것까진 없고 앓을 공간이 될 때까지는 머물러
있자.’였지요.

“나 좀 그만 밀어젓혀, 너.”라며 바로 옆에 앉은 겨울잠쥐가 말했어요.
“너 때문에 숨도 쉴 수 없다고.”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다고,”라며 엘리스가 무척 온순하게 말했어요. “내
가 커지고 있으니까.”

“넌 여기서 커질 권리가 없어.”라며 겨울잠쥐가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엘리스가 좀 더 용감해져 말했어요. “너도 매일
커지고 있잖아.”

“그래, 하지만 그건 합당한 속도로 커지는 거고,”라며 겨울잠쥐가 말했어
요. “너처럼 허무맹랑한 속도로 커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니 겨울잠쥐가 골이 나서 별떡 일어나더니 법정 반대편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이러는 동안에도 여왕폐하는 한시도 눈을 모자장수에게서 떼지 않았지요.
때마침 겨울잠쥐가 법정을 가로질러 가는 걸 본 여왕폐하가 법정 관리인에
게 말했어요.

“가서 지난 콘서트(음악회) 때 노래를 부른 가수들의 목록을 가져오거라!”

이 명령에 가엾은 모자장수가 너무도 떠는 바람에 두 구두가 다 벗겨지고
말았답니다.

“증거를 대거라,”라며 왕이 호통을 치며 다시 말했어요. “그렇지 않음 네가 겁을 먹든 말든 사형에 처하겠노라.”

“제발요, 폐하, 전 그냥 가난한 남자입니다요.”라며 모자장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다과회를 연지는...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니다요, 이렇게 버터 바른 빵도 얇고... 차도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요...”

“뭐가 반짝반짝하다고?”라며 왕이 말했어요.

“차가 그렇다는 겁니다요.”라며 모자장수가 대답했어요.

“물론 반짝반짝하다는 말을 어디다 쓰는 지는 나도 알고 있다!”라며 왕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지금 네 놈이 나를 바보로 아는 게냐? 어서 말해보거라!”

“전 가난한 남자입니다요.”라며 모자장수가 말을 계속했어요. “제가 굳이 반짝반짝하다고 그런 건... 그러니까 저도 3월 토끼한테서 들은 겁니다요...”

“네가 언제!”라며 3월 토끼가 황급히 끼어들며 말했어요.

“네가 그랬잖아!”라며 모자장수가 말했어요.

여기에 그림 있음

“부정하는 바이옵시다!”라며 3월 토끼가 말했어요.

“방금 그가 한 소린,”라며 왕이 말했어요. (배심원들보고 하는 말)“기록에서 삭제하십시오.”

“음, 어쨌든, 겨울잠쥐가 한 말에 의하면...”라며 모자장수가 행여 겨울잠쥐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설까봐 조마조마해하며 되돌아보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겨울잠쥐는 어떤 부정도 하지 않았죠, 왜긴요, 그새 굶아떨어졌거든요.

“그 후,”라며 모자장수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빵을 좀 자르고 버터를 그 위에 발라...”

“잠깐만요, 겨울잠쥐가 뭐라 그랬다고요?”라며 배심원들 중 한 명이 물었어요.

“기억 안 나는데요.”라며 모자장수가 말했어요.

“기억해내라,”라며 왕이 한 마디 내던졌어요. “그렇지 않음 널 사형에 처하리라.”

절망한 모자장수가 이제 들고 있던 찻잔과 버터 바른 빵까지 떨어뜨리고서 한 쪽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어요. “전 그냥 가난한(poor) 남자입니다요, 폐하.”

“참 ‘말주변 없는’(poor) 사람이기도 하지.”라며 왕이 말했어요.

이때 ‘기니피그’(25~50센티미터의 쥐. [사진링크](https://goo.gl/JYMpK4) [▶](https://goo.gl/JYMpK4) <https://goo.gl/JYMpK4>)들 중 한 명이 환호를 내질렀는데, 그는 즉각 법정 관리인들에 의해 제지당했죠. 그건 다소 힘든 과정이었는데, 어찌 되었나 제가 설명드리자면, 관리인들은 우선 기니피그의 입을 끈으로 묶고는 기니피그

를 머리부터 큰 천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관리인들이 그 위에 깔고 앉았답니다.

‘저 광경을 보게 된 게 기뻐,’라고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신문에서 종종 재판 말미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읽은 적이 있지만. 그래도 ‘일부 방청객석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고 그 즉시 그는 법정 관리인들에 의해 제지당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 뭐야.”

“더는 더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 그만 증인석에서 내려와도 좋다.”라며 왕이 계속 말했어요.

“더 내려갈 곳도 없나이다,”라며 모자장수가 말했지요. “지금도 저는 평소 처럼 바닥인 걸요.”

“그럼 그만 자리에 앉아도 좋다.”라며 왕이 대답했지요.

이에 또 다른 기니피그가 환호성을 질렀고, 그도 즉각 제지당하고 말았지요.

‘자, 이제 모든 기니피그들이 끝장이 났으니!’라며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이제 재판이 좀 더 수월해지겠지.’

”차를 다 마셔야해서요.“라며 모자장수가 그때까지도 가수들의 목록표를 유심히 살피고 있던 여왕폐하를 매우 근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왕께 말했어요.

”그래 가도 좋다.“라며 왕이 말하자, 모자장수는 허겁지겁 법정을 떠났어요, 어찌나 급히 자리를 떠는지 벗겨진 자신의 누구도 다시 신지도 않고 달아나기 바빴답니다.

여기에 그림 있음

“밖에 나가는 즉시 방금 그 자의 목을 쳐라.”라며 여왕이 관리인들 중 한 명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관리인인 문밖에 나가보니 김새를 친 모자장 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증인을 부르게!”라며 왕이 말했어요.

다음 증인은 공작부인의 요리사(여성)였어요.

그녀는 손에 후춧가루통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녀가 입장하기도 전에 벌써 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심하게 재채기를 해대는 바람에 엘리스는 다음 증인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챘답니다.

“그래 증언을 하시오.”라고 왕이 말했지요.

“싫습니다.”라고 요리사가 말했어요.

순간 왕이 당황해 흰 토끼를 걱정스레 쳐다보았지요.

그러자 흰 토끼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어요.

“폐하 이 증인에겐 반대신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 알겠네, 네 그리 함세.”라며 왕이 울적한 말투로 말했어요. 그러더니 왕은 팔짱을 낀 채 두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까지 인상을 쓰면서 요리사를 바라보더니 이내 힘찬 저음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과일 파이(타르트)들은 뭘로 만들었느냐?”

“대개는, 후추로요.”라며 요리사가 말했어요.

“당밀(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설탕을 분리해내고 남은 끈적끈적한 액체들 모두)입니다.”라며 그녀 뒤편에서 잠결에 누가 발언했어요.

“저 겨울잠쥐를 체포하라.”라며 여왕폐하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 겨울잠쥐의 목을 베란 말이다! 썩 끌고나가라! 그를 진압해! 그를 꼬집으라고! 그놈의 구레나룻(귀밑에서 턱까지 난 수염)들을 뽑아버려!”

잠시 법정 전체가 이 일로 소란스러웠지만 결국 겨울잠쥐는 붙들여 나가고 말았어요.

이후 모두들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자리에 앉아보니 아 글썩 증인이던 요리사가 사라지고 없지 뭐예요.

“뭐 신경 쓸 거 없네!”라며 왕은 그녀가 사라진 게 무척 맘이 놓인 듯 말

했어요. “그래 다음 증인을 부르게.”

그런 다음 왕은 목소리를 한 톤 낮추고 여왕폐하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다음 증인의 반대신문은 당신이 좀 하시구려. 그 재판 좀 했더니 골치가 다 아프구려!”

흰토끼가 이름표를 살피는 것을 본 앨리스는 다음 증인은 또 누굴지 사뭇 호기심이 샘솟는 게 느껴졌어요.

“...(이탈릭체)아직까지는 증인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았어.”라며 앨리스가 혼잣말을 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흰토끼가 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앨리스!”라는 이름을 호명했을 때 앨리스 본인이 얼마나 놀랐을 지를 말이죠.

(11장 끝)

※ 위의 동화는, 아래링크의 영어동화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11장. 누가 ‘과일 파이’(타르트)들을 훔쳤나?」

12장. 앨리스의 증언

“여기요!”라고 앨리스가 소리쳤어요. 그새 엄청나게 커버린 자신의 몸집을 새까맣게 잊은 채로 말이죠.

그녀가 서둘러 일어서는 통에 그만 스커트(치마) 끝자락이 배심원석에 걸려 배심원석이 확 뒤집히는 바람에 배심원들이 그 아래에 깔리고 말았죠, 머리가 아래로 가게 말이죠. 배심원들이 팔다리를 쭉 뻗은 채 사방에 널부러져 있자, 앨리스는 그 전 주에 자신이 실수로 엮질렀던 금붕어 어항이 생각났어요.

여기에 그림 있음

“아, 죄송해요!”라며 엘리스가 경악해하며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최대한 서둘러 배심원들을 주위 담기 시작했죠, 왜냐면 그녀 머릿속에 금붕어 어항 일이 계속 떠올라 얼른 배심원들을 배심원석에 담지 않음 죽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배심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기 전까진...”라며 왕이 무척 근엄한 말투로 말했어요. “재판을 시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하면서 왕은 엘리스는 매서운 눈빛으로 쬐려보셨답니다.

엘리스는 허둥대다 그만 꼬마 도마뱀 빌을 머리가 아래로 가게 자리에 놓고 말았는데, 그 바람에 그 불쌍한 것이 움직이지 못해 하염없이 꼬리만 흔들고 있었답니다.

그녀가 도마뱀을 다시 들어 올려 몸을 제대로 돌려놓았어요.

“반대로 있었어도 재판진행에,”라며 엘리스가 혼잣말을 했어요. “큰 변수는 안됐을 거야.”

배심원들은 얼질러진 충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자신들의 석판과 연필을 찾아내 손에 들고는 방금 일어난 사건들을 분주히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딱 한 명 ‘꼬마 도마뱀 빌’만 제외하고 말이죠. 그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입을 크게 벌리고선 하염없이 법정 천정만 보고 있었답니다.

“이번 일에 관해 뭐 아는 게 있더냐?”라며 왕이 엘리스에게 물었어요.

“아무것도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아무것도라고, 정말?”라며 왕이 거듭 물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음 중요한 사실이군.”라며 왕이 배심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배심원들이 그 말을 자신들의 석판 위에 적기 시작했어요.

이에 흰 토끼가 기겁을 하며 끼어들었죠.

“안 중요하단 말씀이지요, 폐하,” 이 말을 흰토끼는 너무도 공손하게 그러면서도 얼굴에 오만 상을 다 쓰며 말했어요.

“안 중요하다고, 어, 그야 물론 그렇지.”라며 왕이 서둘러 말했더니 이내 목소리를 죽여서 혼자 말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안 중요할까… 중요할까…” 마치 단어 뜻보단 어떤 단어가 더 발음하기에 멋진가를 따지는 눈치였죠.

그 바람에 몇몇 배심원들은 “중요하다”라고 적었고 반면 다른 몇몇 배심원들은 “안 중요하다”라고 적고 말았죠.

이때는 엘리스도 그들 가까이에 있었기에 배심원들의 석판을 들여다볼 수 있었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라며 그녀가 속으로 생각했지요.

그러는 사이 왕이 자신의 공책에 뭐라 막 쓰기 시작하더니, 곧 “정숙(조용히하세요)!“라고 말해 법정 의 떠듬을 말끔히 씻어낸 후 자신의 공책을 소리 내 읽기 시작했어요.

“규칙 제 42조에 의거, 키가 1킬로미터를 넘어서는 자는 누구든 법정을 나가야한다.”

그러자 모두 엘리스를 쳐다보았어요.

“제 키는 1킬로미터가 아닌데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맞는 거 같은데.”라며 왕이 말했어요.

“거의 2킬로미터는 뽕직해 보이는데.”라며 여왕폐하가 덧붙였죠.

“여하튼 전 안 나갈 거라고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게다가 그 판계 무슨 규칙이에요. 당신이 방금 만든 걸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이건 이 책에서도 가장 오래된 규칙이다.”라며 왕이 말했어요.

”그렇담 규칙 1조가 되어야하는 게 아닌가요.“

그 말에 왕이 얼굴이 시퍼레지며 황급히 자신의 공책을 덮어버렸어요.

”평결을 내리시오.“라며 배심원들에게 말하는 왕의 목소리가 낮게 떨리고 있었지요.

”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어 검토하셔야 합니다, 폐하.“라며 흰 토끼가 펄쩍 뛰며 말했어요. “바로 이 편지야 말로 되돌릴 수 없는 분명한 증거이옵 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라며 여왕폐하가 말했어요.

“아직 열어보진 않았습시다만,”라며 흰 토끼가 말했어요. “아무래도 편지 가 한 통 들어 있는 거 같습니다. 분명 범인이 누군가에게… 쓴 게 확실해보 입니다.”

“그렇겠지,”라며 왕이 말했어요. “편지니까 받는 사람이 있을 테지, 암.”

“누구 앞으로 가는 편지입니까?”라며 배심원들 중 한 명이 말했어요.

“특정한 주소는 없습니다.”라며 흰 토끼가 말했어요. “아니 봉투에 아무 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며 흰 토끼는 종이를 펼치며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건 편지가 아니라 일련의 단어들의 조합 같습니다.”

“손 글씨로 되어 있나요?”라며 또 다른 배심원이 물었어요.

“아뇨, 아닙니다.”라며 흰 토끼가 말했어요. “글씨라고도 할 수 없는 괴상 한 것들의 나열입니다.”

이 바람에 배심원들이 모두 혼동에 휩싸이고 말았죠.

“누군가의 손 글씨를 모방해가면 적은 게 틀림없겠군.”라며 왕이 말했어 요.

그제야 배심원들의 안색(얼굴빛)이 다시 밝아졌어요.

“부디 폐하,”라며 책(카드놀이의 책)이 말했어요. “전 글을 쓸 줄을 모르니다요, 전 글 끝에 싸인 할 줄도 모르는 걸요.”

“네가 싸인을 하지 않았다면,”라며 왕이 말했어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애초 네가 불순한 의도가 없고 정직하다면 네 이름으로 어쨌든 싸인을 했을 게 아니냐.”

이 말에 사람들의 폭풍과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건 정말이지 이 날 왕이 한 가장 명쾌한 첫 번째 발언이었거든요.

“이로써 그의 죄를 밝혀냈군.”라며 여왕폐하도 말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딴데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지요. “어떤 내용의 편지인지도 모르시잖아요!”

“편지를 읽거라.”라며 왕이 말했어요.

흰 토끼가 자신의 안경을 꺼내 쓰더니 “어디부터 읽을갑쇼, 전하?”라고 물었어요.

“처음부터.”라며 왕이 근엄하게 말했어요. “끝까지 다 읽고 그만 두거라.”

그래서 흰 토끼는 읽어내려갔지요…

(두 줄 띄움)

(큰따옴표 시작→)“그녀에게 갔다온 적이 이나, 사람들이 내게 물었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했지.

그녀가 제게 추천장을 주던데요.

하지만 내가 말했네, 전 수영을 못한다고요.

(한 줄 띄움)

그가 사람들에게 말했네, 그는 가지 않았네.

(우린 그게 사실인걸 알지.←원문에 괄호 속에 있는 문장임)

그녀가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면,

넌 어떻게 되는 거니?

(한 줄 띄움)

난 그녀에게 하나를 주었고, 그들은 그에게 두 개를 주었네,

네가 우리에게 세 개 그 이상을 주었지.

그들은 그와 너에게서 모두 돌려받았다네,

비록 그 전에 네 거부터 그들이 돌려받았지만.

(한 줄 띄움)

만일 나와 그녀가 이 일에

연루될 거 같음,

그것들을 내놓을지 말지를

그가 너에게 맡길 걸세,

정확하게 지금의 우리지.

(한 줄 띄움)

내 말인즉슨,
(그녀가 불같이 노하기 전까진)
그와 우리 그리고 그것 사이의
장애물이 자네란 걸세.

(한 줄 띄움)

그녀가 그것들을 엄청 좋아한다는 걸 그에게 알리지 말게,
왜냐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네
자네와 나 사이에
나머지 모두와는 다른 비밀 말일세.”(←큰따옴표 끝)

(두 줄 띄움)

“내 생전 이 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듣지 못했다,”라며 왕이 두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배심원들은 평결을 해보시오…”

“그건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그녀는 이 몇 분 동안 무척 커졌기에 이제 왕의 말에 끼어드는 것도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당사자들 끼리 1만원(원문→6펜스)을 빌려준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무슨 꿑꿑이속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배심원들은 모두 석판 위에 받아 적었어요.

“그녀는 거기에 무슨 꿑꿑이속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배심원들 누구도 그 전에 나온 편지 내용을 석판에 적으려 고는 들지 않았어요.

“꿑꿑이속이 없다라면,”라며 왕이 말했어요. “수고를 많이 들 수 있지. 우리가 굳이 뭘 찾을 필요가 없으니 말이야. 하지만 어디 볼까.”라며 왕이 자기 무릎 위에 편지를 펼쳐놓곤 한쪽 눈으로 찬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음, ‘...전 수영을 못한다고요...’라는 이 문구가 뭔가 뜻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 넌 수영을 할 줄 아느냐?”라며 왕이 잭(카드놀이의 잭, 여왕폐하가 여름철 내내 만든 과일 파이들을 훔친 범인으로 몰린 자)에게로 몸을 돌리며 말했어요.

잭은 구슬프게 고개를 흔들며 “제가 그래 보이십니까?”라며 말했어요. 하긴 절대 그럴 리가 없었죠, 완전히 마분지로 만들어진 카드였으니까요.

“그래 그건 그래 보이는구나.”라며 왕이 말하더니 편지 구절들을 중얼중얼 다시 읽어나가기 시작했지요.

그러더니

“어디 보자 ‘우린 그게 사실인걸 알지...’라는 이 부분 말이야... ‘난 그녀에게 하나를 주었고, 그들은 그에게 두 개를 주었네,...’라는 이 구절도, 이걸로 봐선 네가 그 과일 파이들을 어떻게 할지 미리 알았구나, 그렇지...”

“하지만 계속보시면, ‘그들은 그와 너에게서 모두 돌려받았다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그래 그건 저기 있어!”라며 왕이 승리감에 취해 말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있는 과일 파이들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보다 더 분명한 건 없지. 그럼 다시 볼까 ...‘그녀가 불같이 노하기 전까진...’라고 했으니 가만 보자, 여보, 당신은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없잖소, 그죠?”라며 왕이 여왕보고 말했어

요.

“한번도!”라며 여왕폐하가 격노했어요. 여왕 자신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꼬마 도마뱀 빌이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발끈해 여왕폐하가 빌에게 잉크스텐드를 집어던진 거지요.

꼬마 도마뱀 빌은 그 날 내내 자신의 석판에 손가락으로 적고서도 아무런 글씨를 쓰지 못해 안타까워하다 방금 일로 자신의 얼굴에 끼여버진 잉크 방울들이 얼굴에서 똑똑 흘러내리는 동안 그 잉크를 이용해 이젠 서둘러 뭐라고 석판에 적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죠, ‘불같이 노하다’란 표현은 당신에겐 적합하지 않지요.”라며 왕이 말하더니 온화한 미소로 법정 안을 둘러보았어요.

워낙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에 좌중이 귀죽은 듯 조용했어요.

여기에 그림 있음 (원래 그림‘199’번의 링크가 깨져 있어 다른 그림‘009’번을 아래에 대신 링크 겁니다)

“조큰데(농담인데)!”라며 왕이 거둬 말하고 나서야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지요.

“자 그럼 배심원들은 평결을 내리시게나.”라며 왕은 이 날에만도 이 말을 20번 째 말했어요.

“아직, 아직!”라며 여왕폐하가 말했어요. “선고(판사가 판결을 밝힘)가 먼저요… 평결(배심원이 죄의 유무를 평결함)은 나중에라고.”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라며 엘리스가 크게 말했어요. “선고가 먼저라니요!”

“그 주둥아리 다물지 못해!”라며 얼굴이 새빨개지며 여왕폐하가 말했어요.

“싫어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지요.

“저 애의 목을 쳐라!”라며 여왕이 까짓것 목소리를 높여 말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제가 당신들을 신경이나 쓸 거 같아요?”라며 엘리스가 말했어요. “기껏 마분지로 만든 카드들에 지나지 않으면서!”

맞아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예전 크기로 돌아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림 있음

그 순간 모든 카드들이 사방에서 솟아나더니 하늘에서부터 그녀에게로 쏟아져내려왔어요.

앨리스가 놀라움 반 분노 반으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떼어내려는데, 알고 보니 그건 언니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강둑 위에 누워 있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나무들에서 앨리스이 얼굴 위로 살랑살랑 떨어진 몇몇 낙엽들을 언니가 살며시 털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렴, 귀여운 앨리스야!”라며 언니가 말했어요. “어쩐, 이리도 오래자는 거니!”

“아, 정말 신기한 꿈을 꾸었어!”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그리고 앨리스는 언니에게 기억나는 것은 물론 모든 낯선 모험들에 대해 그녀가 예전에 들었던 건 뭐든 다 얘기해주었습니다.

앨리스가 얘기를 다 마치자, 언니가 가볍게 키스를 해주며 말했지요.

“참 신기한 꿈이네, 우리 이쁜이, 그럼 이제 차 마시러 뛰어가려무나. 늦겠다.”

그래서 앨리스는 일어나 내달렸어요.

달리면서 생각했지요.

‘정말 참 신기한 꿈이었어!’라고요.

동생을 보낸 후에도 언니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답니다. 손으로 머리를 기대며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어린 앨리스와 그녀의 신기한 모험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언니도 꿈을 꾸기 시작한 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과 같은 꿈을요…

우선, 언니는 자신이 어린 앨리스가 된 듯 했지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감싼 채 언니를 올려다보고 있는 그 해맑은 눈동자… 언니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요, 두서없이 눈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들을 뒤로 넘기려고 고개를 살짝 흔드는 기묘한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여전히 듣고 있었고 들리는 듯 했어요, 어린 동생의 꿈속에 나왔다는 낯선 동물들과 새들이 그녀 주위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모습들을요.

그녀의 발치에선 흰토끼가 서둘러 지나가는 듯 긴 잔디가 바스락거렸고요… 그 바람에 화들짝 놀란 생쥐가 인근 물웅덩이 속으로 침병 뛰어들고 있었지요… 3월 토끼와 그의 친구(겨울잠쥐)들이 끝나지도 않을 식사를 나누며 찻잔을 부딪히고 있는 소리도 들렸어요, 운 나쁜 손님들에게 사형 선고를 고래고래 명령하고 있는 여왕폐하의 찢어지는 목소리도 들렸고요… 공장부인의 무릎 위에선 ‘돼지 아기’가 연거푸 재채기들을 해대고 있었지요, 그 와중에 부엌 온 사방으로 접시들과 쟁반들이 부딪히며 쟁그랑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그리핀(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머리를 한 괴물)의 새된(날카로운) 목소리와 꼬마 도마뱀 빌이 석판 위에 연필을 쓰대는 킁킁 소리와, 제지당한 기니피그들이 숨을 쉼쉼거리는 소리가 허공을 가득 메우더니 저 멀리에서 이내 곧 ‘가짜 거북이’의 애처로운 흐느낌들과 하나가 되고 있었지요.

그래요 그녀는 눈을 감고서 계속 앉아 있었어요, 반쯤은 자신이 지금 이상한 나라에 와 있다 믿으면서, 그래요 이제 그녀가 눈을 떴을 땐 모든 게 묵직한 현실로 돌아갈 거란 걸 알면서… 잔디는 바람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는 것일 거고, 물웅덩이가 침병대는 소리는 갈대의 흔들림일테고… 찻잔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양떼의 목에 매달린 방울들이 울리는 소리로 변하겠죠, 그리고 여왕폐하의 예리한 고함소리들은 목동의 목소리로 변할 테죠… 그리

고 아기의 재채기 소리도, 그리핀의 날카로운 소리도, 가짜 거북의 무거운 흐느낌이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가축의 울음소리들로 변해가는 동안, 여타 다른 모든 기묘한 소리들도 죄다 바쁜 농장에서 혼잡하게 들려오는 왁자지껄 떠들음으로 변해가리란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언니는 자신의 동생이 이후 어떻게 성장해갈지도 마음속에 그려보았어요. 어른이 되었을 때도 앨리스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사랑스러운 마음씨를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아마도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오래전 이 낯설고 재미났던 이상한 나라의 꿈 얘기로 그들의 동심을 밝혀주고 설레게 해줄 테지요. 또한 그녀 자신의 지금 이 어린 시절의 행복했던 여름날을 회상하며 아이들의 순박한 슬픔도 그리고 꾸밈없는 기쁨도 함께 나누며 살짝 미소 짓는 기쁨을 누릴 거랍니다.

THE END

끝